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3부

학생성장을 지원한 고군분투기

최우수작

단 한 명을 위한 한글 전문가

인천용학초등학교 교사 **원나연**

1.한글 전문가가 된 계기

몇 년 전부터 읽기 전문가 활동, 난독증 진단 위원, 기초학력 전문 학습 지원단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읽기 관련 각종 연수를 여전히 찾아 듣고 공부하고 있다. 국어교육을 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이렇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발령 2년 차에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였다. 처음 1학년을 만나며, 또 환경적 특성상 가정의 케어가 온전치 못한 아이들이 많은 학급을 운영하며 한글 교육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꼈었다. 학급의 50% 이상이 전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했다. 한글 집중 교육 기간을 갖고, 기초 학습력 도달에 집중하여 학급을 운영하였으나 1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ㄱ, ㄴ, ㄷ 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한글교육 연수도 듣고 적용해보고, 가정에도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각종 조언을 구하다 '난독증'이라는 단어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이 이야기에 담아내고자 한다.

2. 한글이 어려워요

3월 한 달은 한글 교육 집중 기간으로 잡아놓고 ㅏ, ㅑ, ㅓ, ㅕ부터 차근차근 지도해나갔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 속도를 잘 따라왔고 1학년답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런데 유난히 발음이 어눌하고 한글 학습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명:준이)가 있었다. 한글 학습의 기본이 되는 선 긋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평소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유난히 선 긋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성급해진다. 삐뚤빼뚤 주어진 선을 제대로 따라 긋지 못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손을 잡고 함께 그려보기도 했지만 다시 혼자 선 긋기를 시작하면 원래대로 돌아갔다. 한글을 따라 쓰거나 한글을 이용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점점 글자의 모양이 변하기 일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학습이 좀 느리고 산만한 경향이 있구나 싶었다.

3월 한 달을 지켜보니, 준이는 의사소통 능력도 다소 부족한 것 같았다. 발음이 어눌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하지 못해 준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문제는 친구 관계에도 이어졌다. 준이가 뭐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친구들은 점점 준이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워했고, 같이 놀이할 때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곤 했다. 그럼 준이는 짜증을 낸다. 사실 소통이 안되어 답답한 건 본인이 제일 클 테니까.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의 다툼이 자주 생기기도

한글 교육 고군분투기

했다. 친구들의 입장도 준이의 입장도 모두 이해가 됐다. 나는 준이의 한글 해득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준이를 위해 한글 튼튼반을 만들었다. 한 학기치 한글 튼튼반 운영 계획을 세우고 가정통신문을 내보냈다. 다만 준이는 꼭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 신청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생각보다 한글 튼튼반은 인기가 많았다. 담임선생님과 남아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1학년 아이들에겐 재밌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아이들의 기초 한글 학습을 원하는 학부모님도 많았던 것이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해서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글 해득이 우수한 학생과 기초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로 나누었고 그렇게 내 방과후 일정은 한글 튼튼반 운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선생님 바라기인 1학년 아이들과의 오후 연장 학습은 내 업무 시간이 부족하여 힘이 들기는 하였으나 꽤나 재미있기도 했다. 어떤 학습활동을 해도 아이들의 반응은 생기 넘쳤으며, 이러한 에너지는 내가 더욱 열심히 학습활동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준이도 한글 튼튼반 학습에 즐겁게 잘 참여하였고 분명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3. 어떤 노력에도 결국 원점이었다

방과후 한글 튼튼반을 처음 계획했던 것은 온전히 준이의 한글 해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면서 한글 튼튼반의 정체성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나름 준이의 학습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준이의 한글 학습은 제자리걸음이었다. ㄱ, ㄴ, ㄷ을 채 떼지 못한다. ㄱ을 10분 정도 읽고 쓰고 그려보고 자석 카드로 놀이도 해보고 유토로 만들어보고 해도, 다시 ㄱ을 놓고 뭐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어떤 활동을 하던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 할 뿐이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부모님께도 자주 전화를 드렸다. 준이가 유독 한글 해득이 느리기도 하고 다른 교과 학습 수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드렸다. 학부모님께선 준이가 생일이 많이 늦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 준이의 생일은 12월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조금 느릴 수 있다. 하지만 ㄱ, ㄴ, ㄷ을 채 떼지 못하는 것은 느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수반 선생님께 준이에 대한 상담을 여러 차례 드렸고 1학기 동안 잘 가르쳐보고 학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안내드려서 2학기에는 특수반 입반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준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실에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졌다. 한글을 모르니 타교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관계에서 자꾸만 다툼이 생겼고, 놀이나 협력학습시 준이를 끼지 않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타교과 수업 때도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신기하게도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하면 곧잘 해결하곤 했다. 다만 학습지를 풀거나 익힘책을 풀 때, 문제를 옆에서 하나하나 읽어줘야 했다. 너무 이상했다. 지적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냥 한글만 해득이 안되는 것이었다. 처음 만나보는 유형의 학생이어서 이때까지도 그저 어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할 뿐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다. 1학기 동안 한글 튼튼반 학습 과정들과 결과를 알려드리고 여전히 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준임을, 느림의 문제로 여기기엔 한글만 유난히 해득이 안되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준이에게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득 드린 끝에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한글 해득에 진전이 없으면 특수반 입반 관련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하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드디어 준이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준이는 정말 특수반 입반 관련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주로 지적 수준과 관련된 검사였고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나도, 특수반 선생님도, 어머님도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원점이었다.

2학기에는 한글 튼튼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았다. 준이 외에는 한글을 떼지 못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준이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따로 남아 한글 공부를 하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을 모르니 수업 시간에 혼자 해내지 못하는 활동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그날그날 끝내지 못한 학습을 마저 하고 가느라 거의 매일 남게 되었다.

가끔은 준이도 너무 억울했다. 혼자 남는 것도 싫었고, 선생님은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얼른 다 해내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하루는 꺼이꺼이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원래도 발음이 부정확한데 울면서 말하니 나는 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나도 억울했다. 준이만큼이나 열심히 준이를 위해 한글교육 연수도 찾아 듣고, 준이를 남겨서 학습시키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준이부터 개별지도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4. 드디어 찾았다!

그때 '기초 학력 지도 한글 교육'과 관련된 연수 홍보를 보게 되었고, 한글 교육 연수라니 당연하게 또 신청했다. 기초 학력 미도달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읽기 유창성에 관해, 한글 해득에 관해 연수를 듣고 직접 실습도 해보는 연수였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한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해왔다면, 이 연수는 한글 해득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게끔 했다. 나는 그동안 준이에게 어떤 학습 장애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럼 검사를 받으면 특수반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특수반에서 매일 1대1로 지도를 받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것이다.

한글 교육 고군분투기

준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게 맞았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나는 학습 장애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연수를 들으면 들을수록 준이는 난독증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나 활동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유독 한글 해득이 안되는 경우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했다. 난독증이 맞다면 여태 준이에게 해왔던 한글 학습 지도 방법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연수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교육청 차원에서 난독증 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미 특수반 입반 관련 검사를 한차례 끝낸 후였기에 학부모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있어선 안됐다. 어머님께 준이에 대한 담임교사의 진단을 알려드리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난독증 진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여름방학 내내 준이와 시간을 보내보니 한글이 전혀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느끼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행히 큰 거부감 없이 담임교사의 말을 따라주셨다.

다만 난독증 진단의 시기가 겨울밖에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은 1학년을 마치고 받게 되었다. 준이가 2학년에 올라간 뒤에도 2학년 담임선생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이는 겨울방학 기간에 난독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청에서의 난독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 지켜보기에도 준이는 더욱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끔 마주치면 내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이전보다 더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한편으론 다행이었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교사는 참 여러 방면에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학습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난독증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더라면 준이에 대해 더 빨리 이해하고 알맞은 대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나를 보며 준이의 새 담임교사가 되신 2학년 선생님께서 오히려 내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생각보다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유형의 학생이지만, 선생님처럼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특히 1학년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준이 어머님의 협조는 모두 평소 선생님의 애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준이는 자신을 진득이 바라봐주는 선생님을 만나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5. 그 이후

지금도 종종 준이 생각이 난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한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난독증 진단과 관련된 연수를 계속 들어 지금은 난독 진단 위원이 되어 다른 학교에 도움을 주러 다니기도 한다. 매년 학급 내에서도,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한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준이는 나를 성장시켰고, 준이 스스로도 놀랍게 성장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오고 이제는 준이의 소식을 더 들을 수 없지만, 분명 더 밝은 미소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학년이나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교사는 자라가겠지만 1학년 담임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세워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이 나와 맞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었을 때, 준이와의 성장통은 내게 그 해답을 주었다. 함께함으로써 분명 또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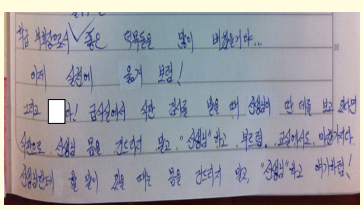
그동안 학생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 것

인천건지초등학교 교사 **김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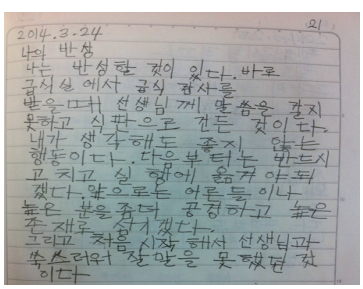
그게 시작이었다.

2007년 담임을 맡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반은 숙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하루 한 편 글쓰기를 하게 했다. 그러던 중 학생들 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세 번째 학교에서였다. 그때 난 학교 일과 교실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간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대단한 착각이었지만-8년 차 교사였다.

2014년 3월.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식판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밥을 다 먹고 식판 확인을 받으려는 것이다. 순간 소리를 지를 번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인내심이 생겼는지 감정을 누르고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도 교실로 갔다. 점심을 먹은 후 학생들의 글쓰기(소위 일기)를 확인한다. 일기의 '일'자가 그날 있었던 일을 쓰게 할 것 같아서 글쓰기라고 부르자고 했다. 그 학생의 글쓰기가 나왔다. 내 생각을 썼고, 다음 날 그 학생도 답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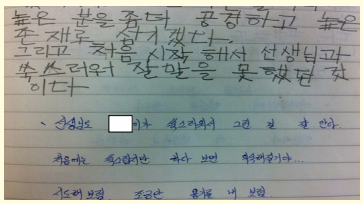


그리고 ○○아! 급식실에서 식판 검사를 받을 때 선생님이 딴 데를 보고 있다면 식판으로 선생님 몸을 건드리지 말고 "선생님" 하고 부르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을 때는 몸을 건드리지 말고. "선생님" 하고 얘기하렴.



2014. 3.24. 나의 반성

나는 반성할 것이 있다. 바로 급식실에서 급식 검사를 받을 때 선생님께 말씀을 걸지 못하고 식판으로 건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고치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앞으로는 어른들이나 높은 분을 좀 더 공경하고 높은 존재로 섬기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선생님과 쑥스러워 잘 말을 못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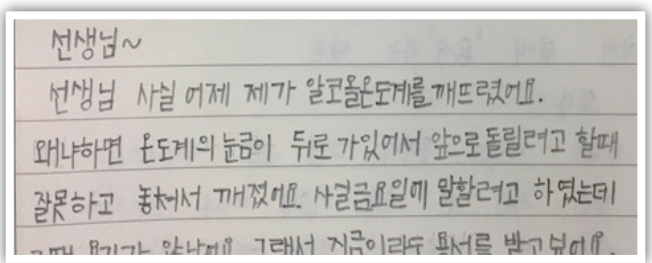


선생님도 ○○이가 쑥스러워서 그런 걸 잘 안다.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시도해보렴. 조금만 용기를 내보렴.

이렇게 글을 주고받은 후 내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전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와 나의 글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게 시작이었다.

1. 글은 말보다 느리지만,

이 학생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성실하고 무척 조용한 5학년이었다. 낯을 가려서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반 전체가 돌아가며 국어책을 한 문장씩 읽을 때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글쓰기 숙제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어느 날 이렇게 썼다.


선생님~
선생님 사실 어제 제가 알코올온도계를 깨뜨렸어요.
왜냐하면 온도계의 눈금이 뒤로 가있어서 앞으로 돌릴려고 할때
잘못하고 놓쳐서 깨졌어요. 사실금요일에 말할려고 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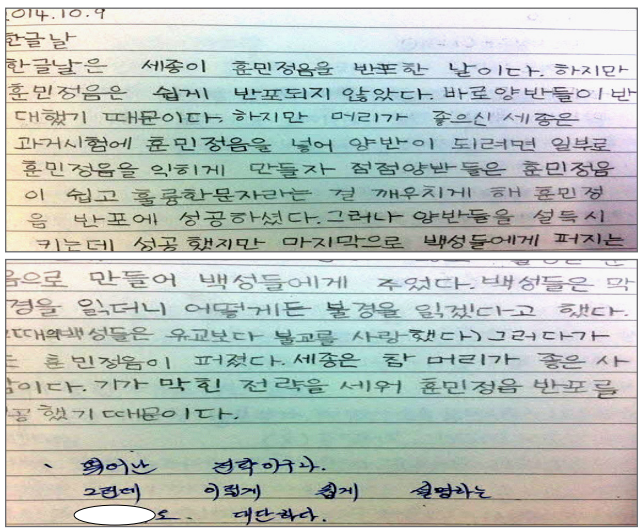
나도 답장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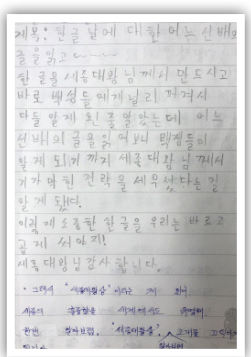
00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한다. 온도계를 깨뜨리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수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숨긴 게 더 큰 실수인 것 같다. 그때 얘기하고 넘겼으면 00이 마음이 더 가벼웠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에 '용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대단한 잘못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용서라는 말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 나 쓰는 거야. 선생님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어. 수업 준비가 덜 됐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선생님은 "미안합니다. ~해서 ~됐어요."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 00이도 앞으로 그렇게 하렴.

어쩌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을 일이다. 이 학생 성격상 속에서 매우 삭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온도계를 깨뜨린 일에 대해 우린 그렇게 정리했다. 00이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글은 말보다 느리지만 그런 힘이 있다.

학생들의 글을 우리 반에서 쓰고

학생들이 쓴 글은 때로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된다. 사진으로 남긴 학생들의 글을 우리 반 학생들 글쓰기 공책에 그대로 붙여준다.


014.10.9
한글날
한글날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쉽게 반포되지 않았다. 바로 양반들이 반
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가 좋으신 세종은
과거시험에 훈민정음을 넣어 양반이 되려면 일부로
훈민정음을 익히게 만들자 점점양반들은 훈민정음
이 쉽고 훌륭한문자라는 걸 깨우치게 해 훈민정
음 반포에 성공하셨다. 그러나 양반들을 설득시
키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퍼지는
음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주었다. 백성들은 막
경을 읽더니 어떻게든 불경을 읽겠다고 했다.
때의백성들은 유교보다 불교를 사랑했다) 그러다가
훈민정음이 퍼졌다. 세종은 참 머리가 좋은 사
이다.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 훈민정음 반포를
공했기 때문이다.
· 뭐이난 전략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도. 대단하다.


제목: 한글날에 대한 어느 선배의
글을 읽고~~~
한 글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시고
바로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서
다들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선배의 글을 읽어보니 백성들이
알게 되기까지 세종대왕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소중한 한글을 우리는 바르고
곱게 써야지!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 그래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어.
세종의 훌륭함은 세계에서도 유명해.
한번 알아보렴. '세종대왕상' 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10월 10일 월요일

제목: 한글날에 대한 어느 선배의 글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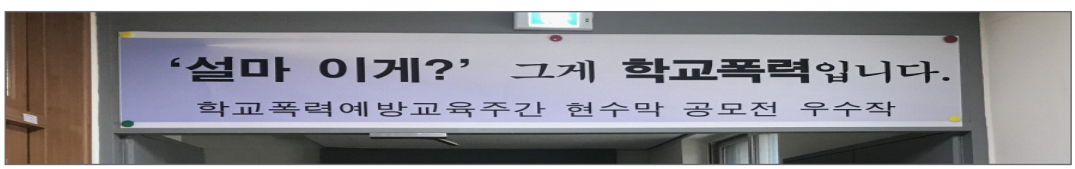
한글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시고 바로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서 다들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선배의 글을 읽어보니 백성들이 알게 되기까지 세종대왕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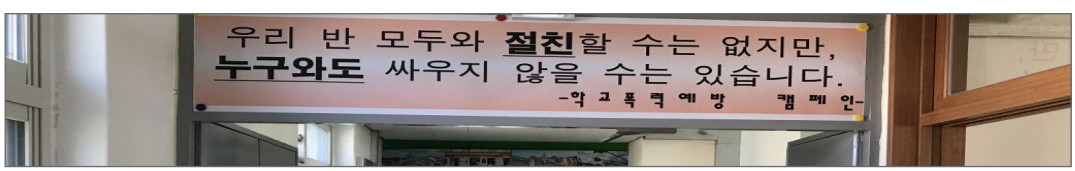
이렇게 소중한 한글을 우리는 바르고 곱게 써야지!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어. 세종의 훌륭함은 세계에서도 유명해. 한번 알아보렴. '세종대왕상' 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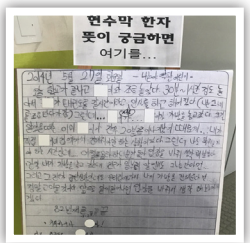
2. 업무에서 쓰고

올해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맡았다.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은 급식실로 이동하기 위해 별관 통로를 지난다. 이 길을 오고 가며 여기에 학교폭력예방관련 현수막을 걸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써 붙였다.





그렇게 캠페인을 하던 중 '상대방을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역지사지라는 글을 걸기로 했다. 오래전 학생 글이 생각났고, 외장하드 2014년 자료 폴더에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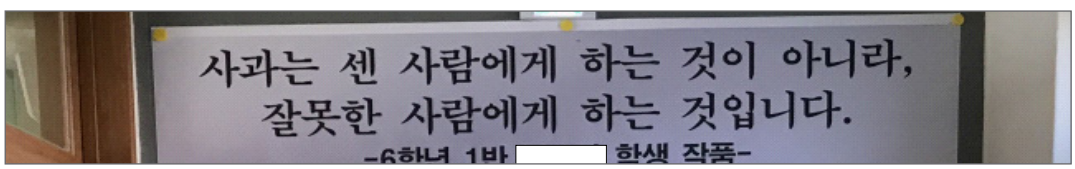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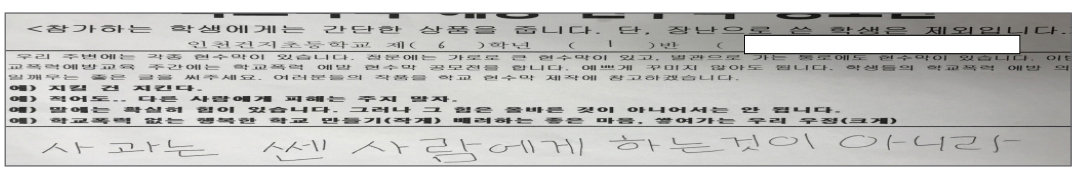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나는 착한 어린이-

오늘 학교가 끝나고 00이와 조금 놀았다. 30분~1시간 정도 놀아서 00이가 태권도를 갈 시간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나는 그네를 조금 타다가 감) 그런데.. 00이가 ...00이가 가방을 놓고 갔다.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00이가 간 후 20분쯤이나 지났기 때문에...내가 직접 00이네 집에 가서 전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도 학원을 가야 하는 시간인데... 어쩔 줄 몰라 하던 순간 동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았다. 만약 내가 가방을 놓고 갔는데 친구가 일부러 알면서도 그냥 간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급한 상황인데도 우리 집에 와서 나의 가방을 전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이다. 앞으로 일이 일어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겠다. 82번째 글. 끝.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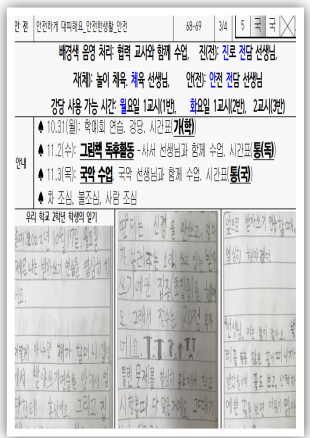
기특하구나. □□아~ 다른 친구들도 □□이의 이런 생각을 닮았으면 좋겠다."역지사지"의 생각.

이번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수막 공모전을 해봤다.





학년 업무를 하면서도 학생들 글을 쓴 적이 있다. 주간학습안내를 작성하던 중 안내란에 매번 뻔한 얘기들이 식상했다. 차 조심, 불조심, 사람조심, 인사를 잘하자. 준비물을 잘 챙기자. 물론 중요한 얘기다. 하지만, '이걸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글을 그대로 안내 부분에 실어보았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날짜: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제목: 나는 받아쓰기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할머니 집(댁)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안 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할 때, 딴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엄마가 불러주는 소리, 쓰고 있는 받아쓰기에만 집중(초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는 20점. 유유에요. ㅠㅠㅠㅠ

틀린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시험 볼 때 다 맞은 거예요. 그때 기분이 최고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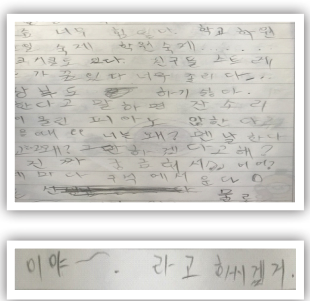
앞으로 받아쓰기 연습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 저는 봄이 좋아요. 벚꽃과 개나리꽃 등등 많은 꽃이 피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꽃도 보고, 산책하기도 좋고,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서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새롭긴 한데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까? 안 해보고 고민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직성에 풀리는 성격을 탓할 수밖에 없다.

3.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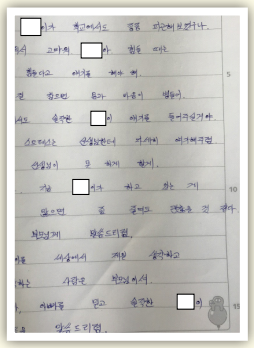
올해는 2학년 학생들과 지내고 있다. 최근 우리 반 학생이 이렇게 썼다.



10.13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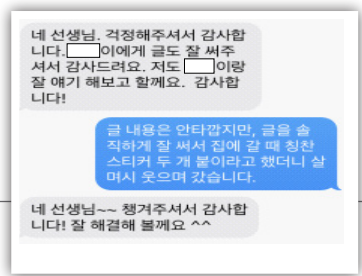
요즘 너무 힘들다. 학교, 학원, 집안일, 숙제, 학원 숙제....다크서클도 있다. 친구들 스트레스도 가끔 있다. 너무 졸리다. 합창부도 하기 싫다. 안 한다고 말하면 잔소리 바이올린, 피아노 안 한다고 했을 때 "너는 왜? 맨날 한다고 하고, 왜? 그만하겠다고 해?" 그때마다 구석에서 운다. 물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

댓글을 썼다.



그래서 OO이가 학교에서도 종종 피곤해 보였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OO아. 힘들 때는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해. 힘든 걸 참으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부모님께서도 솔직한 OO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친구들 스트레스는 선생님한테 자세히 얘기해주렴.
그럼 선생님이 못 하게 할게. 그리고, 지금 OO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렴. OO이를 세상에서 제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셔.
엄마, 아빠를 믿고 솔직한 OO이 마음을 말씀드리렴.

그리고 보호자에게 전화했다. OO이의 글을 봤냐고 물었다. 엄마는 못 봤다고 했다.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OO이와 대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OO이가 쓴 글과 내가 쓴 댓글을 사진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호자와 연락했다.



학부모와 교사의 바람직한 관계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4. 학생들의 글을 나는 이렇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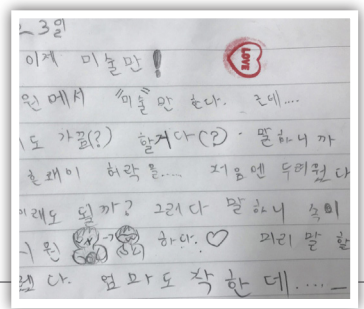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생각을 가르친다기보다 내 친구나 선배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서 공감을 얻기를 바라서였다. 일종의 전파라고 할까? 학생들이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거라 믿었다.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거기에는 그들의 기쁨, 슬픔, 고민이 있었다. 그걸 공유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더 도움을 받은 것 같다.

5. 마치며...

원고를 보내려던 날. 마지막에 얘기한 학생의 글쓰기에 이렇게 쓰여있었다.

10.23일
제목: 이제 미술만!
이제 학원에서 "미술"만 한다. 근데... 학습지도 가끔(?) 할 거다. 말하니까 엄마가 흔쾌히 허락을... 처음엔 두려웠다.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다 말하니 속이 아주 시원하다. 미리 말할 걸 그랬다. 엄마도 착한데...



우수작

교실에 서 있는 이유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사 **박 진**

1. 어둡지만 밉지 않은 아이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만난 수0이. 항상 검은 잠바에 이마를 덮은 앞머리. 무표정한 얼굴. 뭔가 음울한 기운을 풍겨서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수업 시간에 자기 생각을 곧잘 말한다. 점심 먹고 모두 놀러 나간 텅 빈 교실에서 수0이는 항상 혼자 앉아 그림만 그린다. 공부 시간에도 눈치를 봐가며 교과서, 연습장 때론 책상 위에 그림을 그린다. 뭔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면 얼른 감춰버린다. 이 아이가 궁금하다. 마음속에 뭔가 잔뜩 품고 있는 것만 같다.

'학교가 괴롭다. 학교가 폭파되었으면 좋겠다. 학교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한자 쓰면서) 이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학교가 싫다.'

아침마다 쓰는 마음 날씨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수0이 자리에 다가가 이야기를 꺼내 본다.

"학교 오는 게 무척 괴로운가 보구나.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

"4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예상대로 단답형 대답으로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게 한다.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려워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모르면 그냥 놔두고 그림만 그린다. 수학 시간에 다른 애들을 둘러보지만 내 시선은 늘 수0이에게로 향해 있다. 다가가서 최소공배수, 통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2문제만 풀어보자고 하면, 어느 정도 하는 척하다가 내 시선이 멀어질 때 다시 그림 그리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0이가 밉지 않다. '이건 뭐지. 날 무시하네.'란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수0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더 크다. 만약 다른 아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더라면 엄하게 화를 냈을 텐데…. 아마도 마음 날씨에 적은 수0이의 진솔한 고백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 싶다.

'수0이의 무료한 학교생활에 전환점이 될,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3월에 내가 제일 많이 한 고민이다. 처음 해보는 안전 및 진로 부장 업무, 5년 만에 해보는 6학년

담임 업무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나의 시선이 수0이에게로 쏠려 있음에 감사하다. 수0이가 좋아하는 그림과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다 발견한 비주얼 싱킹 학습지.'바로 이거다!' 사회 비주얼 싱킹 학습지를 서너 장 출력해서 수0이에게 건네주었다.

"앞으로 사회시간에 이 학습지로 같이 풀고 싶은데, 여기 그림들 보면서 네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줄 수 있겠니? 네가 만든 학습지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네 한번 해볼게요."

"학원이나 다른 일로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시간은 괜찮아?"

"시간 많아요."

그 뒤부터 쉬는 시간에 학습지를 보며 연습장에다 그리느라 바쁘다.

"제 스타일로 좀 바꿔서 그려도 되나요?"

"그럼 되고말고."

학교에서 뭔가 할 일이 생겨서 기쁜 눈치이다. 만약 약속한 대로 학습지를 그려오면 복사하고 밑에다 이름을 넣어줄 예정이다. 조용히 그림만 그리는 오타쿠로 불릴 정도로 우리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0이가 만든 학습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학교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들기를 소망한다.

성경의 에스더서에 페르시안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알아차린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면서 왕비가 된 사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애써달라며 이렇게 말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을 읽을 때 문득 수0이가 생각났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네가 교사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아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나의 사명이자 소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2018년은 수0이를 만나게 하려고 이 교실로 부르셨구나!

2. 2년 만의 용서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싶어서 부탁했던 사회 비주얼 싱킹 학습지를 몇 번 만들어서 적용해 보았다.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며 수업했으나 매번 그리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마 후에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 아쉽기는 했지만 이를 계기로 부쩍 친근해졌다. 내가 편해졌는지 학습지 상단부에는 항상 내 얼굴을 그려 넣는다. 쉬는 시간에도 몰래몰래 내 동태를 살피면서 내 얼굴을 연습장에다 그려서 와서 보여준다. 일본 만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수염 달린 아저씨 얼굴이 대부분이다.

다음에 그릴 때는 면도도 하고 눈 좀 크게 그려서 남자 만화 주인공처럼 그리라고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그려온 적이 없다. 몇몇 애들이 수0이가 자기 얼굴을 이상하게 그려놨다고 이르면 수0이 그린 내 얼굴 그림을 보여주며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며 조용히 무마시킨다. 10년 전에

만났었으면 아마도 날 우습게 여긴다 생각하고 아마 화를 내었을 듯싶다. 2018년에 만나서 다행이다.

개인적인 친밀감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수0이의 마음 날씨는'괴롭다'로 시작했다. 또한 수학책에 답을 쓰라고 하면 '0~~~100 사이'.'알 수 없음.''모름'이라 쓴다. 10년 넘게 교사를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강적이다. 완전 귀차니즘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래도 내가 말하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샤프를 들고 뭐라도 하는 자세를 보여줌에 감사하다. 특별히 교실을 꾸미기 위해 그림 그려서 게시해달라고 부탁하면 기쁘게 들어주곤 한다. 미술 결과물도 출중하기에 우리 반에서 수0이는 존재감 없는 오타쿠에서 그림 잘 그리는 4차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덕 시간에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어쩌다 어른'에서 나오는'초등학생이 말하는 위드유'영상 클립을 아이들과 같이 보았다. 수학여행 때 숙소에서 자기의 바지를 벗기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잘 때 바지를 잡고 잔다는 5학년 아이의 고백. 모두 웃으며 괴롭힐 때'그러지 마'라고 외쳐 주었던 2명의 친구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학교 다니고 있다는 고백에 아이들도, 나도 눈시울을 붉어졌다. 가해자 아이들이 나와서 사과했지만, 내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는 날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본 소감을 정리하여 글로 써보자고 했다. 용서란 줄다리기와 같아서 내가 손을 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해 설명하며'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과'나 때문에 저 아이처럼 지금까지도 상처받고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도록 하였다.

평소에는 한두 줄만 쓰고 엎드려 있던 수0이가 웬일인지 오랫동안 쓰고 있다. 공책을 걷자마자 수0이 글부터 찾아봤다. 4학년 때 자기에게 패드립 하고 이유 없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괴롭혔던 2명의 아이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0이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만 살고 있기에 가정환경에 따른 놀림을 당했었나보다. 정말 심하게 괴롭혔던 한 명은 다른 반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 반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같은 모둠에 있었다.

'수0이가 학교 오는 것이 괴로운 이유가 어쩌면 내가 가해자와 같은 모둠에 둬서 매일 얼굴을 보게 한 것일 수 있겠구나!'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이상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어학실에 가기 전에 가해자였던 아이만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4학년 때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선생님이 시켜서 사과했기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한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겠냐고 묻자 흔쾌히 다시 사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웠다. 점심시간에 둘만 따로 협의실로 불렀다. 약속한 대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0아. 이 아이가 하는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지니? 너에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 진심이 느껴져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용서해 줄게요."

다행이었다. 더 심하게 괴롭혔던 아이는 조만간 담임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6학년 되어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수0 이를 보며 내 마음의 짐도 한 꺼풀 내려앉은 느낌이다.

그 다음 날 과연 마음 날씨에 뭐라고 써서 낼까 궁금했다. 부디 긍정적으로 적어주길 바라며 조마조마하게 펼쳐본 공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귀찮다 – 학교 오느라 일어나는 것이 귀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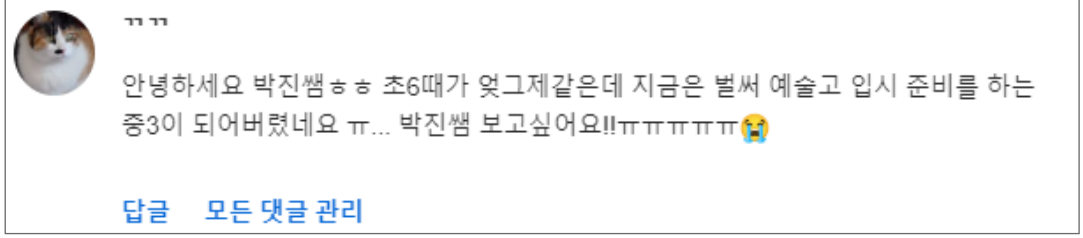
그래도 이게 어디냐. 괴롭다는 것에서 귀찮다는 것으로 바뀌었으니...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0이가 그간 받았지만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만 삭혔던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유받아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다.

3. 그 이후..

2년 만의 용서를 하고 며칠 후 또 다른 가해자에게 사과받고 싶은지 묻자 이제는 굳이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을 이제는 놓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진 듯하다. 쉬는 시간이면 늘 혼자서 그림만 그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 서너 명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학기 초에는 정말로 수학여행이나 체험 학습 때 같이 놀 친구들이 없을까 걱정스러웠으나 이 또한 기우에 불과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이제는 친구들에게 찾아가며 놀곤 한다. 여전히 학교 오는 것을 피곤하게 여겼지만 적어도 괴로워하지는 않았고 공부 시간에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눈에 보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0이는 졸업을 했고 중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핸드폰이 없었기에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졸업 후에 다른 아이들은 한두 번씩 찾아오는데 수0이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대신 퇴근길에 우연히 수0이 아버지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수0이 지금도 그림 잘 그리냐고 묻자 지금도 그림 많이 그린다고 하시며 중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닌다고 하셨다. 다른 것보다 그림에 특별한 소질이 있으니 디자인 쪽으로 진학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 옮기기 전에 시간 되면 한 번 찾아와달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야속하게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무렵 유튜브 댓글 창에 알람이 떠서 들어가 봤다. 반 아이들 연극을 한 것을 부모님 보시라고 올린 영상에 수0이가 찾아와 댓글을 단 것이다. 아마도'좋은씨앗반'이란 이름으로 기수제를 이어오고 있기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온 듯하다.



너무나 반가워서 대댓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의 소질을 살려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라며 시간 내서 꼭 찾아오겠다고 하며 대화를 마쳤다. 며칠 후에 다시 들어가서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유튜브에서 교육용 영상에 대해서는 댓글 기능을 차단해 버려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진학을 했을 텐데 원하는 학교에 갔을지 궁금하다. 생각해보면 그림을 통해 사회 수업에 공헌하도록 이끌며 용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했던 수업 시간이 수0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수업 속에서 다룰 때 비로소 상처에서 회복되어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 준 수0이에게 참 고맙다. 수0이는 어쩌면 지금 우리 반에서 다른 이름,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비가 오기를 기다리다 비가 오는 순간 싹을 틔우는 사막의 새싹처럼 선생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 들여다봐 주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내가 교실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좋은 씨앗들을 싹 틔우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며 남은 교직을 보내고 싶다.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우수작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되기

인천숭의초등학교 교사 **최인숙**

해마다 담임을 맡게 되면, 떨리는 심정으로 아이들 명단을 펼쳐본다.

'음... 올해 우리 반에는 장난꾸러기들이 많구나..'

'친구 관계 유의? 이건 또 뭐지?'

'다문화 배경 학생은 2명이 있구나.'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학교는 부분 등교를 실시했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개학 전에 학부모님들께 전화로 인사를 드리며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학부모님 2분 상담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한 학생(앞으로 A학생)은 더 어린 시절에 다문화 배경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무척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배경은 가족 모두 중국 조선족 출신이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아버지와 학생만 귀화 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관한 정보와 참가를 통해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나머지 다른 학생(앞으로 B학생) 학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듯했다. 이 학생의 배경은 어머니는 한족,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이셨다.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는 주로 중국어로 대화하고, 다문화센터에도 다니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언니는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맡은 학생들만이라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긍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4월 중순, 전면 등교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서로 어울렸다. 두 학생 모두 친구 관계는 무난했으나, 의외로 B학생-다문화 배경에 대해 거리낌 없이 생각한다고 했던-이 조금은 어둡고,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 A학생은 학급 회장도 하며 학교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나, 예상대로 주변 친구들은 이 학생이 다문화 가정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6월초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공문이 도착했다. 대회 안내 부분을 복사하여

가정으로 보내며 부모님과 상의해 보고 참가를 희망하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오도록 안내했다. A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 학생은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국어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어서 올해는 참가가 어렵다고 하셨다.

B학생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원고 작성을 위한 안내를 하였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초등부는 한국어, 이중언어를 각 3분 이내에 말하는 대회이다. 중국인 어머니께 1차로 설명을 드리고, B학생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원고 작성을 해오도록 하였다. 몇 차례 반복해서 원고를 써 왔으나, 설명한 내용과 달리 참신한 내용이 아니었고, 3분은커녕 1분도 안되어 끝날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래서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시간을 내어 몇 차례 써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가족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 차가 많은 언니가 돈을 벌어 가족여행을 했던 이야기도 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드디어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발음 지도와 외워서 말하기 연습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몇 가지 발음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 흘려 읽거나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원고를 외우도록 했다. 1주일의 시간을 주고 한국어 원고를 외워서 검사하기로 하였고, 드디어 검사날이 되었다. 그런데 잘 외워오겠다고 약속한 B학생이 원고를 1/3도 못외워 온 것이었다. 앞으로 중국어 원고도 외우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도 하고, 촬영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주말에 긴 시간 동안 만나서 원고 외운 것을 점검하고, 발음을 고치고, 자연스럽게 말해보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중국어 말하기 연습 - 발음과 원고 외우기 지도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그렇듯이, 가정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 B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B학생의 경우에는 양호한 것이 어느 정도의 듣기와 말하기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집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였고, 코로나 이전에는 방학 때마다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생활 중국어를 익히고 있었다.

몇 주간 주말에 만나 한국어, 중국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했고, 인천시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의 예선 대회에 제출하였다. 이제 2~3주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본선 대회와 전국 대회에 대한 안내도 B학생에게 해주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사실 이 학교에 전근 오기 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업무로 맡아서 추진한 것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운 좋은 경험을 했다.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 대기업의 후원으로 2년간의 언어 멘토링과 각종 캠프 참가 등(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만약 인천시의 대표로 선발이 된다면, 그 학생과 가족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걸 알기에 우리 반 학생에게

도전해 보고, 노력해 보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름 방학 중에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 - 본선 대회 진출이었다. 기쁜 소식을 B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원고를 조금 수정하기로 했다. 비디오 촬영할 때, 중국어 말하기가 조금 느려서 3분에 거의 임박해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1줄 정도 줄여서 연습하기로 했다. 본선대회는 개학하고 거의 바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방학 중에 대회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본선 대회는 무대에 서서 말하는 대면 대회로 치뤄져서 그에 대비한 연습도 필요했다.

개학을 하고 다시 말하기 연습을 시작했다. 방학 중에 수정한 원고를 건네 주며 연습해야 할 것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고쳐지지 않았다. 다시 주말 연습이 시작되었다. 말의 빠르기, 어조, 끊어 읽기, 표정, 제스쳐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문제는 원고 숙지가 너무 된 나머지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이었다. 말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해서 그 점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웠다. 끊어 읽기와 문단이 바뀔 때 쉬어 읽기 등을 반복해서 지도했다.

본선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교장, 교감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교장실에서 말하기 연습을 해 보았다. 대면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필요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잘한다 칭찬과 격려도 듬뿍 해주셨다. 말의 빠르기가 어느 정도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대면으로 말해보니, 또 다시 원점이 되었다. 이번에는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했다. 그동안 반친구들은 B학생이 선생님과 무엇을 그렇게 연습하나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선보이게 된 것이다. (사전에 B학생과 학부님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도 괜찮겠느냐는 의견을 여쭈었다.) B학생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말하자, 친구들은 환호와 함께 큰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B학생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드디어 본선 대회 날, 지도 교사와 학생만 본선 대회장에 입실할 수 있어서 B학생과 함께 아침 일찍 만났다. 만남 장소에 B학생과 함께 나오신 어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고, 그 진심이 진하게 느껴졌다. 작년 이중언어대회 지도했던 학생 학부모님께서도 어찌나 고마워 하시던지.. 며칠 전에는 이제 곧 멀리(대구) 이사가게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정말 작은 일 하고도 큰 칭찬 받는 것 같아 쑥쓰러웠다.

대회장에 일찍 도착한 우리는 마지막 연습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착석했다. B학생을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다. 모두다 긴장되는 시간이 흘렀다. B학생도 연습한 것을 충실히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올해는 초등학생들의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이 월등했다. 중고등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배경도 다양해졌다. 우리 학급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만큼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학생들 한명 한명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있다. 아직도 다문화 배경을 부끄러워 하고, 숨기려 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차별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자원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들이 무관심 속에 덮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원어민처럼 능숙하게 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끝이 났다. 우수상을 받았다. B학생과 가족이 무척 기뻐하셨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상장을 멋진 액자에 담아서 주셨다. 자랑스럽게 B학생의 집에도 걸려있으리라.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B학생이 자신의 배경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하길 바란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중국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서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역량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A학생도 안좋았던 과거 경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길 바래본다.

B학생에게 대회 참가 소감을 물었다. 그 이야기로 글의 끝을 맺는다.

대회 참가하기 전에는 중국어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엄마와 함께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긴장도 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긴 글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언니,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큰 상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저 말고도 여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아이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인천숭의초등학교 교사 **공경아**

1. 언제쯤 보여 줄래?

"어? 또 아파서 결석한다는 문자가 왔네?"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일까? 어디가 아픈 거지?"

"이 아이는 왜 자주 안 나오는 걸까?"
B와의 첫 만남은 쉽지 않은 시작을 예고했다.

주로 고학년을 담당하다가 오랜만에 저학년을 맡게 되니 왠지 모를 신선함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초롱초롱 맑은 눈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기대하며 새학년의 첫날을 시작했다. 기나긴 코로나19와의 다툼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졌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경험은 내게 두려움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적절한 자료를 찾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우리반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하게 되었다. 다른 반에 비해 유난히 작은 우리반 학생들, 몸집만 작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반에 비해 두드러지게 어린 티가 났다. '에고,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구나.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할 게 많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며 3월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난히 작은 학생들 중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 더 많이 결석하는 특정한 학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B였다. 마스크로 가리긴 했지만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 말을 걸면 마치 아기같이 대답하는 학생. 첫인상이 참 좋았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한없이 귀엽고 미소를 지을 때면 보이는 눈웃음이 예뻤다. 그 미소와 눈웃음을 자주 보면 좋으련만 결석하는 일이 늘어났다. 결석에 대한 연락은 문자로 주는 통보뿐이었다.

B야, 언제쯤 너의 미소를 보여 줄 수 있을까?

2.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B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했다. 왜 자꾸 결석을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학교에 계신 복지사 선생님께 SOS를 청했다. B는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두 명의 형과 상급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나까지 4남매의 막내였다. 다자녀가정이며 주양육자인 엄마는 학교라는 기관에 대해 그다지 협조적이지는 않은 듯 했다.

대략의 정보를 바탕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B의 엄마와 통화를 시도했다. 역시...통화 연결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들린 목소리. 교사에 대해 감추고자 하는 경계감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목소리였다. B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보호자이자 학교에서 엄마를 대신하는 담임교사로써 B가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 주었던 것일까.. 장시간의 통화 끝에 B의 어머니는 학생을 제대로 등교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학습 보충을 위해 멘토링 수업을 권유하자 일정과 내용을 안내해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학생이 어려서 등하교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셔서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고학년 형들이 올 때까지 교실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있겠다는 제안이었다. 등교는 형들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하교방식에 대한 제안을 조심스레 건낸 것인데 의외로 상당히 좋아하는 반응이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결석이 진행됨에 따라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한번 더 부탁을 했다.

B 어머니, 우리 B가 학교에 잘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3. “쟤는 누구에요?” 에서 “언제 와요? 많이 아파요?”로

B가 자주 결석을 하자 학년초 학생들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져버렸다. 모처럼 등교한 날, 학생들의 주된 질문은 “쟤는 누구에요? 전학왔어요?”, “재도 우리반이에요?”로 점철되었다. 우리 반에 건강이 좋지 않아 못 오는 학생이 있음을 매일 이야기해 주었으나 그걸 기억하기에는 B가 등교한 날짜가 너무 적었다.

B가 등교하기로 한 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했다. “B 우리반 만들기!” 매시간 B의 이름을 반복하여 불렀다. 예쁘게 앉았다고, 예쁘게 그렸다고, 미소가 예쁘다고, 잘 정리했다고, 친구를 잘 챙겨주었다고....찾아야 할 거리가 너무 많았다. B도 생각보다 붙임성이 좋아서인지 등교한 후에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마치 항상 같이 지냈던 사이였던 것처럼. 아이들끼리의 흡수력과 친화력은 어른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함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교화학습과정에서 모둠활동과 짝활동을 수시로 투입하면서 학생들끼리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시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던 '쟤 누구에요?'는 "우리 B 왔어?", "선생님, B 왜 아직 안 와요?", "B 많이 아프대요?"로 점차 바뀌어갔다. 쉬는 시간이면 함께 웃고 다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순수한 아이의 그것이었다.

B야, 친구와 어울려 지내는 시간을 누리지 못함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친구들은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4. 선생님 교실에서 놀면서 기다려도 되요?

형제들이 등교하는 기간 우리 교실은 삼형제의 놀이터가 되었다. B를 데리러 우리 교실에 와서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교실에 앉아 놀이를 하거나 나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휴대폰을 가지고 조용히 게임을 하거나 유투브를 보기도 했고, 자기 교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의 머리모양이 바뀌거나 안경을 바꾸어 쓰고 온 날, 귀를 뚫고 한 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온 날은 모두 나와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날이 되었다. 다행히 모두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는지 이런저런 물음에 잘 대답해주곤 했다. 덕분에 삼형제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관심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반 B는 종합장을 열심히 접어 내게 손편지를 주고 갔다.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 잘 올게요. 자꾸 빠져서 죄송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서 주고 간 편지.

B야, 선생님한테 죄송할 건 없단다.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는 시간을 네가 같이 누리지 못함이 마음 아플 뿐이란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너는 너무나 밝고 예쁜 작은 천사 같단다.

B는 교실에서 놀면서 형들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보충학습을 같이 하면서 기다리기도 했다. 아무래도 결석이 잦아 학습보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B의 엄마도 B가 교실에서 종종 개별 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주었다.

어느 날, 두 형이 모두 교실에 오지 않았다. 그만 서로 잊은 것이었다. B는 평소보다 교실에서 오래

기다리게 되었다. 놀랐을 B를 달래주고자 장난도 걸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었다. 다행히 둘째와 연락이 되어 B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걱정하고 있을 B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아이를 챙겨주어 고맙다는 답장이 왔다. 그리고 다음 날, 나와 공부를 하던 B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냈다. 사탕을 하나 꺼내더니 껍질을 벗기고는 곧장 내 입으로 가까이 가져다댔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저도 선생님 줄려고 가지고 왔어요." 작은 손으로 챙겨준 사탕이 어찌나 달던지...

5. 얼굴 좀 보여 줄래? 잘 있는 거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과 잘 지내던 B는 다시금 등교를 하지 않았다. 형제들 모두의 결석. B의 엄마는 학교를 잘 보내겠다는 약속, 관심가져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모두를 금세 지키지 않았다. 가정방문을 연락하고 가정방문을 해도 B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아무런 소득 없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발걸음은 씁쓸하기만 했다. 학교만 오면, 친구들과 어울려 있기만 하면 하루종일 웃는 아이인데... 왜 자꾸만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건지... 담임으로서의 염려와 같은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자꾸만 앞섰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누나가 다니는 상급학교와도 계속 연락해보았으나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저런 기관에 문의도 하고 연락도 해 보았으나 시도할 수 있는 건 지속적인 연락, 응답없는 연락뿐이었다. 형식적인 '아파서 못 갑니다'는 메시지는 염려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형제들의 결석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다시금 친구들의 기억에서 자취를 감추려고 하고 있었다. "왜 아직 안 와요?"라는 물음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다. 무단결석이 이어지게 되고 대답없는 메아리처럼 B의 엄마에게 시도한 전화통화와 문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잦은 병결로 인해 처음에 갔던 가정방문은 B의 엄마의 비협조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곧 등교했었다. 두 번째 가정방문을 가서는 B엄마의 흥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아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했다. 여러 선생님들과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아이를 보게 되었지만, 멀찍이 서서 아이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나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쿵 내려앉았다. 아이가 나를 보며 짓는 웃음이 왠지 공허해보였던 건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제발 등교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여러 사람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B와 형제들은 학교에 다시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시작했다.

B가 다시 등교하던 날, B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몇 아이들의 환호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B를 잊지

않고 있었다.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B를 무척이나 보고싶어했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와, B다."라는 환호와 함께 B를 둘러싸고는 소중한 보물 옮기듯이 B의 자리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B가 오지 않았던 사이 우리 반이 공부한 내용, 같이 만든 것, 학급 선거 치룬 것, 전학생이 온 것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알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B야,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하네. 기분 좋지?"
"네! 기분 좋아요!"
"이제 학교에 잘 오자, 응?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봐."
"네!"

그날 이후 B는 학교에 잘 나오고 있다. 형들도 여전히 우리 교실을 놀이터 삼아 종종 놀고 간다. B와의 보충학습은 이젠 다른 친구들 몇몇과도 함께하는 학습 시간이 되었다. B는 보충학습 하는 과정에서 가끔 모둠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먼저 "선생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해 볼게요.", "선생님, 그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신나게 노는 것은 물론이다. 수업시간에 모델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종종 웃음을 주기도 하고 있다.

6. It's not your fault.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 재능은 있으나 여러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날개를 펴지 못하던 주인공이 나온다. 하지만 인생의 멘토를 만나 날개를 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한다.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 없이 포기하고자 하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려고 할 때 인생의 멘토인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I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 반의 B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B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의 어깨에는 작은 날개가 기지개를 펴려 하고 있단다.
넓은 곳으로 가 보자꾸나.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 보자꾸나.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입상작

인공지능활용수업으로 협업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인천금마초등학교교사 **공민수**

해바라기 그림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림 그리기에 한 평생을 바쳤던 반 고흐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반 고흐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과 함께 미술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며 그 결과를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술시간이 즐거운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는 건 재미있어요"

"색칠하는 건 힘들어요."

"스케치하는게 자신이 없어요."

학생들은 오리고 붙이는 만들기 시간은 즐거워하지만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시간은 괴롭고 힘들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림그리는 시간이 싫은 시간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미술시간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다라는 주제를 주면 무엇을 그릴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쉽게 그려지는 물고기 외에도 문어를 그리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그려야 할지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하나지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이 생기는 미술시간에는 학생들도 선생님도 힘든시간이 되었습니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힘든 정도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즐거운 미술수업이 되기 위한 인공지능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술과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총 12차시 수업입니다. 12차시 수업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AI로 마음열기, 2단계 AI로 밑그림 그리기, 3단계 AI로 색칠하기, 4단계 AI로 의견나누기, 5단계 AI로 더 나아가기입니다. 각 단계에 속한 차시별 수업을 살펴보면서 고군분투하며 학생 성장을 지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미술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며 그 결과를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술시간이 즐거운지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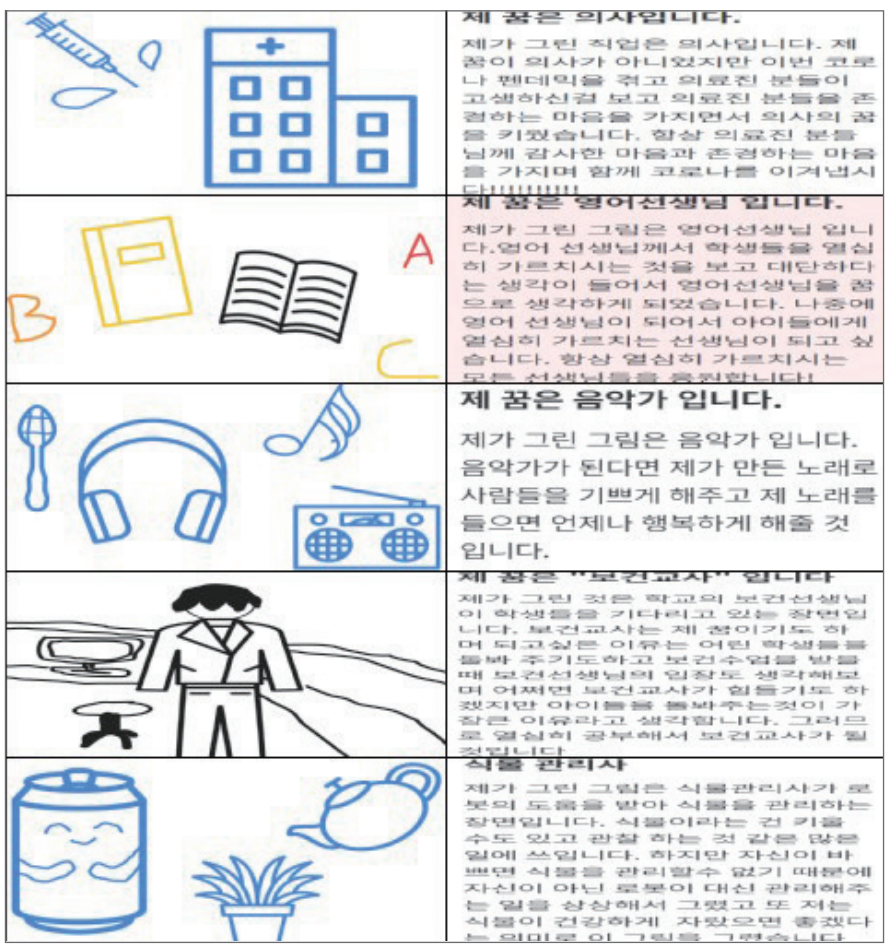
우리 생활 주변의 인공지능을 찾아 발표하는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활 주변에 예체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나 생활 가전, 어플, 로봇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찾아 조사하는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구글슬라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수업은 동시에 접속해서 자신들이 찾고 싶은 내용의 이미지나 영상들을 찾아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유튜브 속 뉴스영상들을 찾아서 잘 조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느린 친구들은 조사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숙제로 낸다면 교사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결국 엄마숙제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반에서는 잘하는 학생은 자신의 조사과제를 끝내고 친구를 돕는 꼬마선생님으로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심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느린 친구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결과물들은 [그림 1]과 같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림 1] 모둠별로 조사한 우리 생활 주변의 인공지능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미술시간 스케치를 할 때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없다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의욕이 없는 학생, 그림을 잘 그리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느라 한 시간을 보내는 학생, 고민해서 그리다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따라 그려도 되냐고 묻는 학생,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 시간 넘게 밑그림을 겨우 그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그려도 되냐고 물으면서 새 도화지를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밑그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밑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나의 꿈을 표현하는 한 장면을 묘사하는 스케치를 그리는 수업에서 밑그림을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낙서처럼 그려도 인공지능이 어떤 것을 그리려고 했는지 추측하여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점차 잘 그리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많은 시도를 해볼수록 원하는 밑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무엇을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의 작품 설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설명글을 살펴보면 의사가 꿈인 이유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고 있는 의료진 분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그 꿈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 선생님을 따라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어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어린 학생들을 돌봐주고, 보건 수업을 하는 보건 교사가 되고 싶어서 보건실에서 기다리는 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식물을 좋아하는 학생이 식물관리사가 되어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식물을 관리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게 중요하지 않고, 작품에 작가의 생각을 담는 주제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술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도록 안내하면 한줄 또는 두줄이 전부였는데 어느덧 작품설명글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구체적이면서 독특한 생각을 담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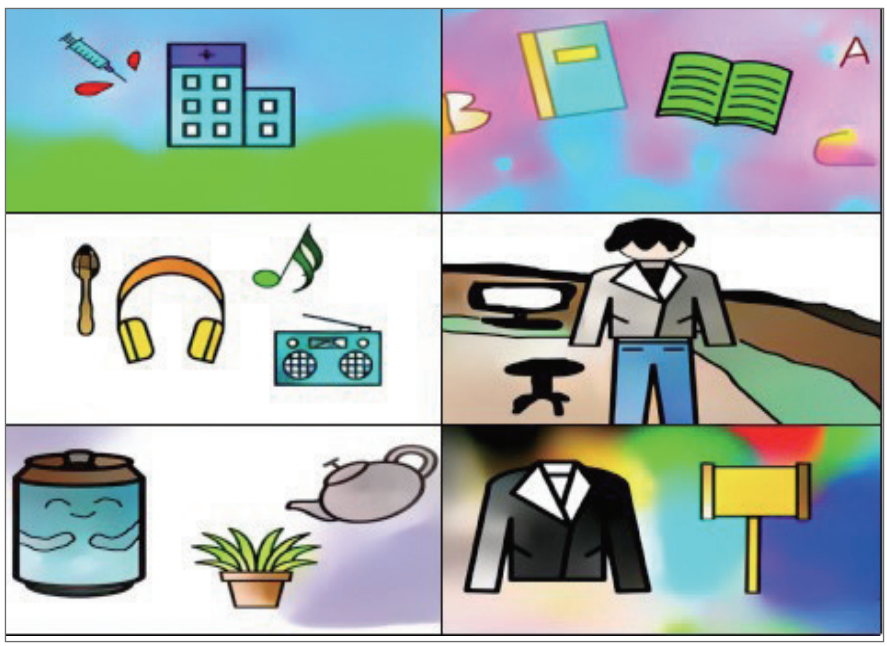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밑그림에 색칠을 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색칠하는 시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어떤 색을 칠할지 고민할 때, 색칠을 일부 하고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을 때,색칠이 마음에 안들때에는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고 싶을 때, 색칠 도구나 재료가 없거나 부족할 때 와 같이 학생들의 미술시간 어려움은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색칠을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자신의 밑그림에 색칠을 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웹툰AI페인터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전 수업단계에서 그렸던 꿈의 한 장면 밑그림 파일을 가져와 색칠을 하게 하였습니다. 학생이 하나의 색을 선택해서 영역을 지정하더라도 단순한 한가지 색을 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화가처럼 명암을 살리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로 색칠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채색 시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번 채색을 하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색을 다시 도전해볼수록 더 나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극적인 태도로 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색칠하는게 쉬워졌어요.”

“ 선생님, 색칠이 재밌어요. 칠하면 칠할수록 잘 칠해져서 신기해요.”

결국 학생들은 자신있게 색칠을 하게되고, 반복의 기회가 주어져 자신이 마음에 들때까지 다시 색칠을 하면서 내적 성공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림 2] 웹툰AI페인터로 색칠한 나의 꿈 장면들

첫 번째 작품을 완성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고생을 담아 푸른색으로 주사기와 병원을 색칠하였고, 앞으로 자신이 의사가 되어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색으로 바닥 바탕색을 칠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하늘색과 보라색을 섞어 바탕색을 색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릴 때 즐거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색과 녹색을 섞어서 썼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에서는 변호사는 법원에서 일하지만 세상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지개색으로 판사봉 주변을 색칠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색을 선택하고 색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탕색 또한 단순히 잘어울리는 색이 아닌 자신의 주제인 꿈의 한 장면에 어울리는 색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아바타를 만드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투닝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면 그 얼굴의 특징을 본따 캐릭터의 얼굴을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바타를 만들 때 캐릭터의 눈썹, 눈모양, 코, 입술, 얼굴형태, 머리모양, 안경착용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자기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과 관련된 아바타를 만들 때 아바타의 모양에 치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속에 아바타를 둘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아바타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Ⅳ-8] 투닝프로그램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내 꿈 아바타

학생들의 나의 꿈 아바타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내 가족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영어교사, 환경을 살리는데 힘이 되는 식물관리사, 아이들의 이빨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는 치과의사,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 사람들에 끈기와 용기를 심어주는 마라톤선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는 프로게이머, 팬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어주는 농구선수, 마음에 힐링이되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 꿈 아바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상작

그림책 프로젝트 수업? 너도 할 수 있어!

인천백학초등학교 교사 **김연주**

2021년 새 학교로 발령 후 초등학교 1학년을 맡으면서 '책날개 입학식'이라는 생소한 행사로 인해 그림책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나 또한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그림책으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고민이 많았다. 정말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해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묘한 매력이 그림책에 있었다. 하지만 그림책을 처음 접해서인지 무턱대고 그림책만 읽어 줄 수도 없고, 그림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처음엔 책날개 입학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과 불안이 앞섰지만 한 번의 경험이 큰 성찰의 기회가 되어 2022년에는 '그림책과 함께 하는 계절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커다란 희망이 샘솟았다.

2월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책날개 입학식' 그림책 선물부터 천천히 생각하면서 2022년 아이들과 함께 읽고 활동할 주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림책 사랑 모임 밴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 선생님들의 자료를 토대로 방대한 자료의 그림책을 주제 중심으로 찾아 읽어 본 후 아이들에게 적당한 그림책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 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 보았다.

계획수립	주제 활동	프로젝트 운영	성찰
• 책날개 그림책 수집 • 계절 그림책 분석 • 책날개 그림책 수집 • 계절 그림책 분석	• 한글 프로젝트 • 계절 프로젝트 주제 구상 • 프로젝트 결과 물 구상 • 한글 프로젝트 • 계절 프로젝트 주제 구상 • 프로젝트 결과 물 구상	• 계절 프로젝트 그림책 읽기 • 계절 프로젝트 수업 활용 • 계절 프로젝트 그림책 읽기 • 계절 프로젝트 수업 활용	• 프로젝트 공유 및 나눔 • 프로젝트 일반화 • 프로젝트 공유 및 나눔 • 프로젝트 일반화

책날개 입학식 현수막

한글공책

그림책(한글 관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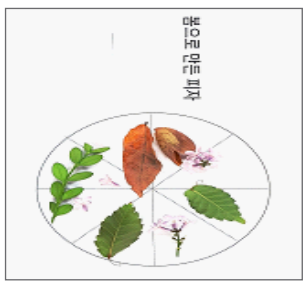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온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한글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3월 한 달간 한글 관련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그림책도 읽어 주고 한글 노래도 부르고 한글 공책을 이용하여 한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즐겁게 한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 활동 시간에 읽어 주는 그림책을 시작으로 교실에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엔 교사의 낭독으로 그림책을 읽어 주었는데 한글을 어느 정도 읽게 되는 순간부터 각자가 원하는 그림책을 골라 읽는 5분 책 읽기가 10분 책 읽기 활동으로 변화 되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계절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활동을 교과와 연계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었다. 주제에 맞는 다양한 그림책을 먼저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어보고 아이들 수준과 활동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일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행히 2021년에는 작년 자료를 중심으로 아이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학교의 봄은 처음이지?'주제로 학교에서 느끼는 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고자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속 참여를 통한 문화 감수성 및 지역사회 이해 능력 함양하고자 재구성해 보았다. 그림책에서 봄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고 동물과 식물도 분류도 해 보았다. 숲 해설사를 초청하여 학교(주변 산)의 봄은 어떤 식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일이 생겨 너무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특히 학교 생태 교실은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내기보다는 계절별 학교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관찰하면서 탐구하는 과정을 지속해서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 추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책 속의 봄



봄 피자

봄이 왔어요

봄 프로젝트가 끝나자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많아 남았다. 특히 다양한 결과물을 어떻게 산출해 낼지도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영어 전학공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조금씩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프로젝트 결과물도 정하고 흐름도를 게시하면서 아이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미리 그림책을 읽어 본 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다양한 주제 그림책을 전시하면서 프로젝트 주제를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었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탐구주제를 이야기하고 생각그물(mind map) 활동으로 연계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도 점차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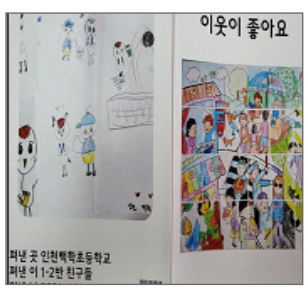
여름 프로젝트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문장으로 나타내고 실천하며 지구를 지키려는 마음 함양하고자 다문화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속 참여를 통한 기후 위기 이해 능력을 키우려는 주제로'구해줘, 지구!'(2021) 프로젝트는 결과물로 줍깅(플로깅)을 진행하였다. '고마워, 지구!'(2022) 프로젝트는 제로웨이스트 강사(샴푸바 만들기), 그림책 북아트강사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속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캠페인 활동과 지구사랑 그림책을 제작하게 되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같은 결과물이 아닌 다른 결과물을 제작하게 되어 나에게는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닌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상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환경연수를 듣고 연수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아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두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급식 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에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시간에 베짜기를 하면서 양말목을 이용해 컵받침을 만들었더니 엄마와 같이 가방을 만들어 온 아이가 있어 정말 신기하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구 사랑 그림책 전시

지구 사랑 약속(2001)

지구 사랑 그림책(2002)

가을의 주제는‘나도 작가’(2021), ‘너는 무슨 꿈 씨앗이니?’(2022)로 운영해 보았다. 여름 프로젝트 결과물로 그림책을 제작하여 이번 가을 프로젝트는 진로 독서 프로젝트로 재능 나눔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진로 독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고 싶은 것(재능)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양성교육, 책놀이, 음악 놀이, 다락 체험, 생태 교실, 북아트 등 만들고 연주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쁨을 확인한 후 재능 나눔 발표회를 열었다. 자신의 재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가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혼자 하는 발표는 어려울 것 같아 3가지 분야로 나누었지만, 다음에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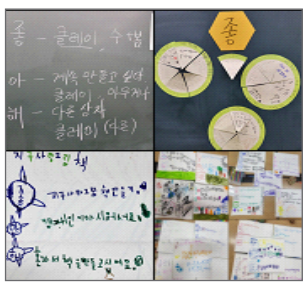
이웃이 좋아요 그림책

진로 독서 체험 활동

재능 나눔 발표회(2002)

겨울 프로젝트는 타 시도(경기도) 수업 교류를 통해 학교간 연대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얻고자 계획을 세웠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 그물



프로젝트로 성찰

프로젝트로 흐름도

책날개 입학식을 시작으로 계절 프로젝트로 그림책을 통해 운영해 본 결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 줌으로써 문해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며 생각그물, 프로젝트 성찰(좋아해 활동) 등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질 수 있고 교실 앞 게시판에 프로젝트 흐름도를 부착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사고의 연속성과 관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혼자가 아닌 교내나 교간전학공 등 계획부터 결과물과 피드백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상호 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공유와 나눔이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놀이로 배우는 삶

인천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진우**

1.'실'로 멋진 실놀이

'실놀이'는 어렸을 적 우리가 했던 실뜨기처럼 '실'을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교실 속에서 '실'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실'로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실로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썰매처럼 친구를 끌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실' 하나가 한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줄 수도 있다. 한 아이와 '실놀이'를 했던 순간이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에겐 '실놀이'는 단순히 놀이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이 아이는 특별했던 아이다. 학교에 있으면서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지만, 아직 나의 기억 속 강렬히 남아있다. 내가 이 아이를 강렬히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항상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그 일을 수습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아이는 흥분하면 얼굴이 새빨개진다. 그러곤 이내 교실의 책상, 의자 등 가리는 것 없이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교실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다. 또 급식실에 갈 때는 음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식판을 화가 난다고 집어던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우 관계는 원만할 리 없었고 아이는 다른 친구들 모두를 적대시하고 공격성을 보였다. 아직 어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까? 그리고 왜 치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나는 교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이 아이에 대해 체념해갈 때쯤, '실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실' 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는 '실놀이'를 정말로 재미있어했다. '실'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리고 성공할 때면 나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곤 했다.

하루는 나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님, 실놀이 더 잘하고 싶어서 서점에서 실놀이 설명해주는 책 샀어요."

아이의 눈동자에는 내가 그토록 바랬던 따뜻함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실놀이에 완전히 빠져 열중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다툼을 일으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실놀이’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하였는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에는 ‘실로 이야기 만들어 발표하기’ 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친구들에게 뽐내고 같이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한 명씩 차례차례 발표를 이어가고 아이의 차례가 되었다. 교실에서 그 누구보다도 실놀이를 열심히 연습했던 이 아이. 한눈에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다양한 모양들을 ‘실’ 하나로 만들고 설명해주었다. 발표를 구경하던 아이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손뼉을 치며 환호하였다.

“놀이는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 하나를 선물하는 것이다.”

나에게 놀이란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작은 벽돌 하나를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 손에 소중히 쥐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나에게 받은 벽돌로 앞으로 만들어나갈 집을 튼튼히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이다. ‘실놀이’를 통해 처음으로 모두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이 날의 경험이 아이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다. 학교와 친구는 널 언제나 받아줄 것이고 너 자기 자신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라고. 그날의 경험처럼 놀이가 인생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짓는 데 부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며 나는 오늘 하루도 놀이하며 살아간다.

2. 진짜 놀이속에서 배우는 삶

코로나 동안에 많은 것이 변했다. 방역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이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활동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언제나 축구하는 아이들로 채워져 있던 방과 후 운동장도 텅텅 비었다. 코로나 이후 교실 속에서 만난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에 대해 서툴러 한다. 밖에서 친구와 놀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크게 발달한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노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놀이 장면 속에는 발달에 중요한 상호작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들은 '사방치기' 자체를 즐거워하지만 '사방치기' 안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 요소가 담겨 있다. 그중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협동이다. 협동을 위해 사방치기를 모둠별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 모든 모둠원이 하늘에 도착했다가 그 자세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모둠원 간의 대화와 협동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놀이이다.

"기발한 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상술에 찌든 어린이 캠프, 체험 없는 체험학습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서요."

"하늘 보고 있을 때 떠가는 구름만 보고 히죽거려도, 그 순간 어린이가 그걸 보고 미소짓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짜 놀이입니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 '방구뽕'이라는 인물의 놀이 철학에 관한 대사이다. '방구뽕'이 말하고 있는 진짜 놀이는 나에겐 '사방치기'이다. '사방치기'를 하는 그 순간 자체에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교실에서도 사방치기를 해보기 시작했다. 교실에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칠판 앞쪽 바닥에 사방치기 판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놀이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사방치기 판을 지나갈 때면 한발 그리고 두발 사방치기 판에 맞추어 지나간다. 운동시간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뛰어다닐 시간이 생긴 것 같았다,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사방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한다. 대화하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규칙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

" 선생님 우리가 새롭게 만든 '사방치기' 놀이인데 엄청 재미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
한 아이의 말을 듣고 난 정말 기뻤다.
바로 이게 '방구뽕'이 말하고 있는 진짜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입상작

앉기를 거부하는 금쪽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인천만월초등학교 교사 **소미옥**

"딸그락딸그락 딸깍깍, 드륵드르륵드르륵, 흔들흔들~으아아아아악!"

이 소리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아니요. 목공소의 목제품 제작하는 소리도 아니올시다. 수업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우리반 금쪽이가 내는 소리이다.

이번 2022년도는 나에게 큰 경험과 많은 배움을 일깨워 준 특별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반 아이들과 함께 하며 울고 웃고 감동하였던 일들을 떠올려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금쪽이와 함께 성장한 우리반 아이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3월 10일 2022년 첫 등교일이었다. 쌍방향 원격수업에서만 보던 아이들을 드디어 직접 만나는 날.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몇 명의 아이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을 대면으로서의 첫 만남이라 설레임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1명이 없다. 기다리다가 복도를 내다보니 복도 끝에 서있는 금쪽이,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들었기에 가서 손을 잡고 겨우 교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되어도 교과서를 꺼내기는커녕 계속해서 연필로 가림막을 긁거나 때려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행동을 제지하면 마스크를 찢어버리고 가림막을 뜯어낸다. 그 후로는 입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낸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반복되었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며 짜증스런 말들이 나온다.

"야, 너무 시끄러워"

"하지 말라고 짜증나게"

"선생님 쟤 왜저래요? 집중이 안돼요"

아이들이 그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난 담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다.

"여러분이 금쪽이 때문에 힘들다는거 알아요. 우리반 친구들도 누구나 잘하는게 있지만 좀 부족한것도 있지요? 그것처럼 금쪽이는 나쁜 친구라서가 아니라 특별한 친구라서 잘 안 되는게 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도와줘야 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1년 동안 함께 공부해야 하는 친구니까~ 서로 도와주다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이가 짝궁이 돼서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는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아주겠다고 했다. **이는

돌아다니면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정말 옆자리에서 교과서도 꺼내주고 공부 내용도 말해주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놀아주었다. 돌아다니면 데리고 자리로 들어와 앉도록 해주었다. 특별한 경우라 매일매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관찰일기를 썼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삽입하였다.

3/10	올해 첫 등교 아침 복도에서 안들어오고 복도 맨끝에 서 있음. 가서 직접 데리고 들어옴. 수업시간에 교과서도 안꺼내고 아무것도 안하고 무반응으로 앉아있음.
3/17 ~ 3/25	수업에 전혀 참여 하지않고 방해되는 소리를 내서 제지하자 마스크를 찢고 가림막을 뜯어냄. 가림막을 색연필이나 연필로 쳐서 따각따각 소리를 냄. 입으로도 엉뚱한 소리를 냄. 계속해서 같은 증상 매일 매일 반복함. 제지하면 여지없이 마스크를 찢고 가림막도 뜯어냄.
3/27	도움반선생님께 도움 요청. 학부모님 도움반 입반 동의.(국어,수학 시간만 도움 받기)
3/28	도움반샘께 특수교육대상 아님 결과 통보 받음(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인 경우만 해당)- 학부모님과 통화:**이는 장애아가 아닌데 특수반 입반 관련 기분 언짢아하심-계속 일반학생과 수업 희망함.
3/30	** 공부도우미 2명, 활동 도우미 3명 자진 희망하여 지정함.
3/31	**이 책상 가림막을 계속 뜯어냄.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거나 딱딱거림. 도우미 친구들이 공부도 도와주고 복도로 나가면 데리고 들어옴.

4월달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반 아이들과 한마음으로 힘껏 도왔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실 내에서 벗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더 잦아지고 어떨 때는 자신의 돌출행동에 관심 가져주는 것을 즐겨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돌발행동으로 교실 밖을 나가 정문 앞까지 내려가는 아이를 무관심으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수업 중에 다른 반에 민폐를 끼치거나 구름다리 위에서 또는 계단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일이다. 교내에 들어오는 택배 차량, 급식재료 운반차량도 드나들거니와 자칫 정문 밖으로 나가 차도로 뛰어 들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수업이 중단되고 도우미 친구들이 금쪽이를 나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학교를 온통 뒤지며 찾아다니느라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반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나도 아이들도 지쳐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비상사태라고 여기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교내 도움반 선생님께 도움반 입반관련하여 문의하고 학부모님께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결론은 ADHD 아동은 입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적장애나 의사소통장애는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위클래스상담실에서 1시간씩 지내고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매일 1시간의 그 시간은 우리반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온통 금쪽이에게 쏠리던 관심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어서 소중했다.

4/1	운동장 체육시간에 사라짐.아이들 3-4명이 찾아다님-한참만에 교실에 있다고 찾아 데려옴. 수업이 엉망이 됨. 도우미 친구들이 공부도 도와주고 복도로 나가면 데리고 들어옴. 이런 상황을 학부모님과 통화: 알았다고 하심.
4/7	4교시 종이비행기 칠판에 계속 날림. 하지 말라고 달라고 하니 꽉 쥐고 안줌-계속 던짐. 뺏었더니 마스크 찢고 엎드려 꼼짝도 안함-급식실 갈 시간 버티며 안일어남-뒤에서 백허그로 안고 달래며 급식실에 간신히 감. (나보다 몸무게 훨씬 많음) 학부모님과 통화: 19일부터 병원진료 예약했다고 하심.
4/14	아침 등교시간 복도에서 애들이 데리고 들어오려고 온갖 노력함. 1교시 영어시간 3회 교실 밖으로 나감. 음악시간 교실 밖 나가서 애들이 쫓아나가 안들어온다고 전담선생님한테서 전화 받음. 1층까지 학교 다 찾아다니다 2층에서 발견 데리고 들어옴. 수학책으로 책상을 자꾸 두드렸다고 함. 수업중 종이비행기 계속 날림. 쉬는시간만 하자고 약속. 5교시 약속 지킴. 전담선생님들(음악,영어) 수업이 힘들다고 하심. 복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사라짐. **위클래스 상담선생님께 상담지도 요청함. 내일 방과후 상담시간 1시간 약속함**.

상담실에서 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내고 온 금쪽이는 조금은 즐거워 보였다. 갈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서로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끝날 시간에는 데리러 가는 도우미 친구들이었다. 서로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자청하여 희망하는 친구들을 일정 기간이 되면 교체해주기도 하였다. 등교할 때 금쪽이를 만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손을 잡고 들어오고 급식실에 갈 때에도 같이 손씻고 기다려주고 항상 함께 해주려는 친구들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다. 등교시간에 오지 않으면 다들 걱정하고 체험학습 갔다가 돌아오면 서로 반겨주고 쉬는시간마다 함께 놀아주는 아이들의 모습, 덩치가 훨씬 큰 녀석을 귀여워해주며 챙겨주는 모습들,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한번도 못넘는 금쪽이에게 서로 가르쳐주려고 하다가 지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는 끝까지 기다려주며 줄을 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습, 드디어 2번, 3번씩 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감동의 물결이 일렁인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 귀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칭찬거리에 모두 박수를 쳐주기 바빴다.

어느새 우리반 친구들 모두가 금쪽이의 꼬마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지쳐있는 순간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스스로 힘을 내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여 미소가 지어졌다. 그렇다고 감동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끝나지 않는 금쪽이와의 힘겨루기 씨름 한판!

4/20	등교시간 복도 끝에 서있음. 들어오라고 몇 번씩 이야기해서 겨우 들어옴. 4교시까지 자리에 잘 앉아있었음. 하이파이브를 여러번 해줌-5교시 도덕시간 복도로 나가서 안들어옴-기다렸다가 안들어오자 아이들이 데리러 감-한참만에 힘들어하며 데리고 옴-애들 모두 머리에 땀이 나고 힘들어함-6교시 창체 나가려고 하자 '나가면 안돼'라고 하니 다시 들어옴(오늘은 5교시만 교실밖에 나갔다 들어옴)학부모님과 통화-**오늘부터 ADHD약 복용. 위클래스 상담실 주2회 상담받기로 함.**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서로 기분 좋은 통화함.
4/21	등교시간 복도끝에서 안들어 옴. 몇번씩 들어오라고 했지만 안들어와서 기다릴테니 조금 있다 들어오라고 함-도우미친구들이 계속 지켜보다가 **이 복도에서 사라져서 4~5명이 찾으러 나감-9시 20분까지도 안들어오고 버텨서 정문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께 부탁드림-5분후 데리고 오심-2교시 연필로 딱딱거림-연필 달라고 하니 꽉 쥐고 안줌. 계속 딱딱거림-하지말라고 타이르며 신속히 연필 압수-점퍼를 머리에 칭칭 감고 마스크는 눈에 쓰고 소리내어 움. 3교시 체육시간 운동장에 안나가려고 버팀-기다리다 도우미 친구들과 함께 나오라고 먼저 나가서 기다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배움터지킴이선생님이 올라가시니 간신히 나옴. 운동장 계속 배회함. 어머님과 통화(오늘 약을 복용했고 아침에 컨디션이 안좋았다고 하심.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하심)
5/19 5/20	수업 끝나고 배움쑥쑥(수학)반 안간다고 복도에서 친형을 붙잡고 엉엉 움. 교실에서 마이쭈 먹고 20분정도 가라앉히고 20분 정도 수학수업 하고 귀가함. 자꾸 나가려고 해서 앞문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게 함. 인성부장님,상담선생님과 논의하여 위클래스 주4회로 연장하기로 함.(상담,놀이치료)
5/23	3교시중 등교함(병원진료후)3교시 상담실, 5교시 화장실 간다며 나가서 안들어와 친구들이 찾으러 다님. 정문쪽까지 나가 애들도 안들어와 2번 찾으러 내려감. 배움터지킴이님, 교장선생님 만남. 아랑곳하지 않음. 방과후 국어 배움수업 안간다며 힘겨루기로 버팀. 어머니와 통화 후 집으로 보냄.
5/25	4교시 음악전담시간 화장실 간다고 나와 화장실까지 따라갔다가 교실로 들여보냈는데 잠시후 또 나와 문밖에서 지킴. 뒷문으로 나오려고 하여 계속 지킴. 5교시 미술시간 화장실 다녀왔는데도 자꾸 나가려고 하여 아이들이 막고 앞뒷문 모두 잠금. 나가려고 힘쓰고 막으려고 힘쓰는 아이들 다칠까봐 조마조마함. 아이들 다칠까봐 놔두라고 하고 지켜봄. 문고리 잡고 문열려고 애씀.

이러다가는 아이들과의 소중한 1년을 망칠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예쁘고 고맙지만 학습피해가 크고 금쪽이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 되어 더이상 아이들의 도움을 기대할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신차려 학교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

6/8	2교시부터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나가려고 함. 무궁화 색칠하다가 중단. 덥다고 하여 앞문 열어놓고 입구에 앉아서 있게 함. '멈춤' 부채를 주고 친구들이 떠들면 들어달라고 부탁함(질서부장으로 임명)조금 하다가 안함. 3교시 화장실 가는척하며 나가버림. 도우미 친구가 찾으러 나갔다가 안들어옴. 교감선생님께 전화하여 인계함. 음악전담시간 4교시 수시로 교실에서 나옴. 내가 화장실까지 따라가고 맞은편 2학년 연구실에서 따로 놀이 지도함. 5교시 화장실에서 문잠그고 휴대폰 하며 안나옴. 6교시 만화 볼때만 자리 앉아있고 다시 나감.
6/9	3교시 상담실 다녀와서 4교시 화장실 간다며 나가서 문 잠그고 안나와 호루라기 소리로 나오게 함. 다시 화장실 간다며 힘으로 실랑이 하다 보냈더니 화장실에 숨었다가 달아남. 교감선생님 호출 연락. 4학년 친형이 데리고 옴(수업시간인데 형 교실에 와서 데리고 왔다고 함)
6/10	1교시 끝나기 10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함. 화장실 간다고 해서 보내주니 문 잠그고 휴대폰 전화 하다가 달아남. 교감선생님 호출. 2교시 쉬는시간 끝나고 아이들이 계단에서 데려옴. 3교시 시작할 무렵 다시 나가서 교감선생님 도움받음. 배움터지킴이선생님이 데리고 들어오심. 4교시 나가서 발목줄넘기로 에너지 분출하게 함. 5교시 20분은 앉아서 손톱 물어뜯다가 계속 나가려고 하여 문 잠그고 문 앞에서 수업을 이어나감.

금쪽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1차 위클래스 상담선생님, 2차 교감선생님, 정문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까지 수차례씩 금쪽이를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셨다. 하지만 돌발상황에서는 그것도 한계를 느꼈다. 나 스스로가 용기를 내야 했고 강력한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다. 스스로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어리석음을 깨닫고 용기내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보조교사 투입을 건의하였다. 금쪽이가 1~2학년때부터 독특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계셔서 이해를 해주셨지만 보조교사 투입 문제는 복잡한 절차과정으로 인해 쉽지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주셨다. 학교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며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도에서 학부모님도 모시고 회의를 하였다. 위클래스 상담선생님, 인성부장님도 회의에 함께 해주셨다. 금쪽이의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의견을 들으시고 학부모님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움을 느끼셨고 한마음으로 뜻이 모아졌다. 아이의 심각성을 아시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한껏 높아지셔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 안심이 된다고 하셨다.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부모님의 신뢰도가 높아지시니 용기와

자신감이 더욱 생겼다. 금쪽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다.

금쪽이에게 공부를 안하고 돌아다닌 만큼 이제부터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굳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였다. 집에 가려는 아이를 붙들고 의자에 강제로 앉혀서 말이다. 무더운 여름날에 덩치가 큰 아이와 한참동안 실랑이를 하다보니 서로 땀에 흠뻑 젖고 기진맥진 하였다. 울고불고 난리치던 아이가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조금씩 학습에 임하였다. 공부를 안한 날은 남아서 공부를 하고 핸드폰도 집에 갈 때 준다고 하였다. 우는 아이에게 끝까지 학습할 것을 단호하게 말하였다.

다음날 금쪽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님께 문의를 하니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난 학부모님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해야 금쪽이를 변화시킬수 있다고 협조를 부탁드렸다. 흔쾌히 약속하셨다. 반아이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다함께 휴대폰을 수거하여 집에 갈 때 찾아가기로 말이다. 금쪽이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가서 전화할 일도 없고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아이들 모두 흔쾌히 받아들여주었다.

다음날, 웬일인지 신기한 일이 시작되었다. 나랑 크게 한판 실랑이를 벌이고 등교 안한 다음날부터 금쪽이가 의자에 앉아있게 되었다. 일어나서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교실 밖을 나가지도 않는다. 금쪽이 엉덩이는 가시가 돋아서 못 앉는줄 알았다. 나도 반아이들도 너무 신기해서 금쪽이에게 박수 쳐주다가 손바닥이 아픈 줄도 몰랐다. 오늘만 그러려니 며칠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했지만 정확히 6월 28일 결석하고 29일부터 10월 마지막주 지금까지 그 전의 교실 밖으로 나가던 돌발사태는 사라지고 이제는 공부하는 척!척!척!을 한다. 친구가 교과서에 무언가를 적으면 따라서 적고 시험지에 열심히 푸는 척 엉터리로 소설을 써서 낼지라도 뭔가를 써서 제출한다. 공부하는 척을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특종세상! 써프라이즈!

금쪽이가 수업시간에 말없이 나갈 때도 있다. 아이들에게 신경쓰지 말라하고 기다려본다. 화장실 간지 얼마 되지않아 스스로 돌아온다. 금쪽이에게 고마운 친구를 말하라면 여지없이 줄줄이 사탕처럼 말한다. 이제는 금쪽이에 대한 완전 믿음으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발등 안찍는 믿는 도끼!

현재의 우리반의 모습은 1학기 때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1학기 때는 1명의 금쪽이와 쪼그만 20여명의 보호자인 꼬마 보조교사들과 함께였다면 이제는 작고 평범한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왁자지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명 한명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진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다.

올해 금쪽이와 반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은 힘도 들었지만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 보호자 같은 보조교사가 되어 함께 한마음으로 도와주고 보살피고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도와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은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든든한 이삿짐 센터였다. 만약 끝까지 나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다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집단지성을 증명한 결과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가 아닌 꼭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남은 2학기도 소중한 추억 만들며 행복하자. 아자아자!

삼실반, 날아오르다!

인천계양초등학교 교사 **오윤희**

2022년 3월. 정말 오랜만에 맡게 된 5학년 아이들을 마주한 나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코로나 2년을 겪어오며 3,4학년의 중요한 시기에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학생들은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돈의 카오스 같았다고나 할까.

정돈되고 안정된 교실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교사의 엄격함과 카리스마로 학급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중, 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자기 주도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학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놀고 떠드는 것은 좋아하지만 서로 토의하여 학급 규칙을 정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교사가 주입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든지, 모둠별 활동을 한다든지, 토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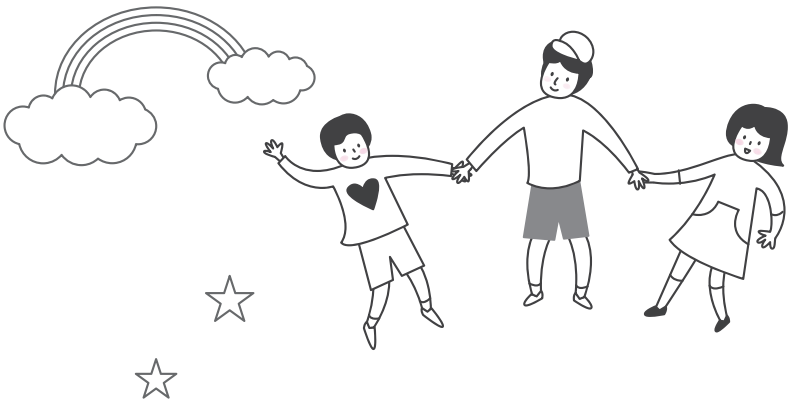
철저히 교사 중심으로 학급을 1년간 이끌어가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보는 경험 없이 한 해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시기야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어렵게 회복된 학교의 일상이 학생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성취감과 성공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고 1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팔딱팔딱 뛰는 활어와도 같은 우리 반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심스레 철저히 학생 주도적인 학급을 꿈꾸게 되었다. 유독 밝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성향상 교사가 바른길을 잘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 주도형 학급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는데, 각각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부서활동

맨 처음, 책상을 모두 치우고 학생들 모두 동그랗게 앉아 허심탄회하게 우리 반의 문제점을 끌어내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우리 반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반의 부서를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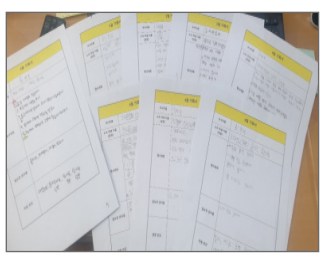
3월에는 이 작업을 하는데 4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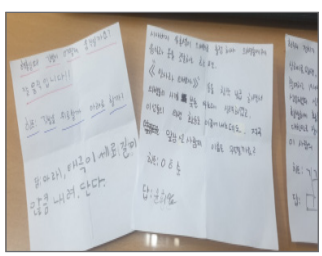
설득하고, 토의토론 활동을 하는 것이 미숙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속되자 학생 자신들도 매우 답답해했지만, 4월부터는 눈에 띄게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랜 토의 활동 끝에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조직은 '행사부, 학급 도움부, 도서 편집부, 환경부' 네 가지 부서였으며, 각 부서에 정해진 제한 인원 없이 자유롭게 희망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서와 부원이 정해진 뒤, 각 부서별로 어떤 학급 활동을 할 것인지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기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사는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형 학급을 세워나갔다.

부서별 회의 활동



학생들 부서별 기획서



행사부 주관 현충일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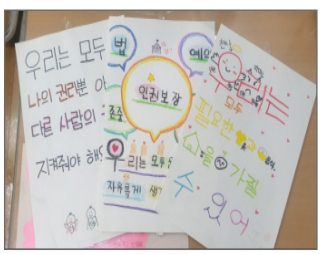
2.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

우리 반은 1학기, 2학기 두 번의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였다. 1학기 때는'계양 살림 텃밭 프로젝트'로 과학, 실과, 미술, 창체 수업을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이었으며, 2학기 때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로 국어, 사회, 도덕, 미술 수업을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의 취지를 충분히 공유하고 전체적인 큰 틀을 학생들과 함께 조직하였다. 학생들이 수업과 연관하여 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을 프로젝트 수업에 녹여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결과를 가져왔다.

텃밭 프로젝트 상추키우기

텃밭 프로젝트 상추수확

텃밭 프로젝트 샐러드 만들기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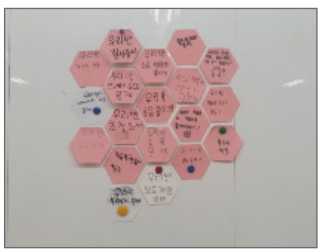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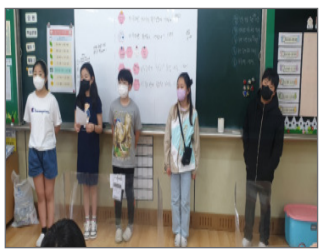
글로벌 프로젝트 환경수업

3. 학급 다모임

우리 반의 모든 행사나 계기교육, 문제상황 발생, 부서조직, 자리 편성 등은 모두 이 학급 다모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제나 교사에게 골칫거리인'현장체험학습, 버스 자리를 어떻게 앉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도 학급 다모임으로 해결했다. 2시간 이상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결국에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학교 행사나 계기교육이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학급 다모임을 통해 학급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계획해 보도록 한다. 교사인 나는 그저 필요한 자료와 준비물을 준비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뿐이다. 학급 다모임 활동을 통해 앞서 언급한 학생 부서 활동도 변화가 있었는데, 필요 없는 부서는 폐지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든지, 부서끼리 콜라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급 다모임활동


학급 다모임활동

학급 다모임활동

어느때 보다 정신없이 2022년을 보내다 보니,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왔다.

여전히 우리 반은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체력 좋은 개구쟁이 반이지만 더 이상'무질서'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학급 규칙의 테두리 안에 조화롭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 움직이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무시되지 않고 학급 안에 전달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반이 되었다.

이제 우리 반은 수업시간에 누군가가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불편함을 느끼면, 교사에게 학급 다모임 활동을 요청한다. 그리고 다모임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학생들 스스로 변화된 학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힘든 일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일년을 보냈다. 이 학생들이 6학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라도 올해의 성장을 발판삼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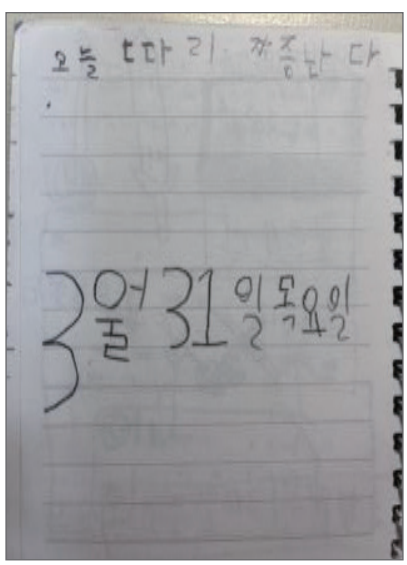
삼실반! 계속해서 날아오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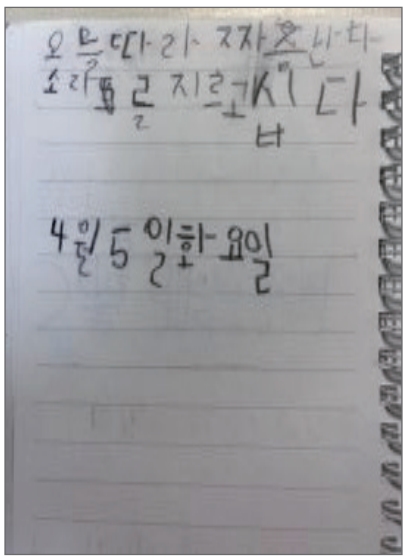
입상작

우리반의 나쁜 씨앗, 꽃이 필 때 까지

인천운서초등학교 교사 **이민주**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인천 운서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아직 병아리 같은 신규교사 이민주입니다. 작년 2학기에 1학년을 한 학기 동안 맡았지만, 아이들의 큰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처음 해보는 교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 한 학기만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자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1년을 통째로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대와 걱정이 가득한 채로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반 증설로 인해 저희 반에 9명밖에 없어 제가 생각했던 학교와 학급의 느낌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17명의 아이들을 맡게 되어 정말 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느낌, 이 아이들을 제가 잘 성장시켜 다음 학년으로 올려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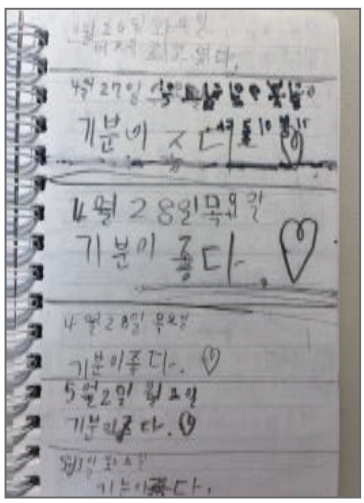




그런데 저희 반 17명 중 제 경력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정말 힘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학교에 올 때면 화가 나 있었고, 쿵쾅거리며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을 책상에 툭 던지고 책가방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의 행동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쿵쾅거리는 소리와 화가 난 듯한 제스쳐, 말투, 혼잣말들이 다른 친구들과 저를 불편하고 두렵게 만드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의 시작부터 화가 나 있는 아이를 보며 저는 학교가 싫은가? 선생님, 친구가 힘든가?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분노를 표출하는 아이를 보다 보니 심지어는 저도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수업에도 집중하지 않고 모둠활동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몇 번을 불러 좋게 말하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 학생을 많이 혼내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혼을 내던 중 저는 아이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는 매우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을 보며 이 학생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이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행동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왔을 때 화가 나면 교실에서 물건들을 쿵쿵 내려놓거나 화를 내며 혼잣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복도에서 화를 내고 달리기를 한다던가(저희 반이 교실이 위치한 4층에는 저희 반 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쳐서 듣지 못하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한다던가 하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학생이 제가 제시해 준 행동을 모두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진심이 학생에게 통했는지 학생은 그 뒤로부터 점점 노력하고 나아지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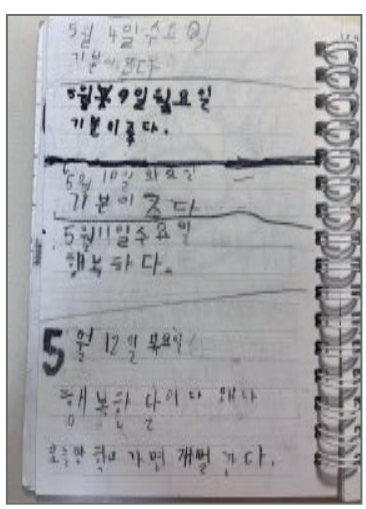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학기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어 이 학생의 어머님과 상담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학생의 그 동안의 학교 생활 그리고 과거부터 좋지 않았던 교우관계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서의 모습까지 모두 이야기하시며 학생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부모인 자신들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저는 이 학생이 그동안 아침마다 화가 났던 원인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밉보일 것을 무릅쓰고 아이가 부모님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학생과 같이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못해 부모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가정에서 많이 칭찬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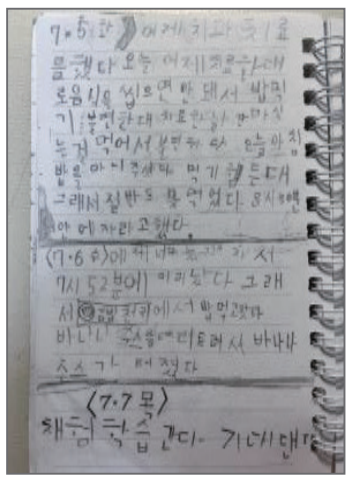
하지만 다음날에도 학생은 매우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었고, 학생에게 물어보니 학생은 그날 아침에도 혼났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발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한 학년에 두 학급밖에 없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급의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을 낙인찍고 피하고 이 학생의 행동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쁜 씨앗'이라는 그림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이 나쁜 씨앗이 너무나도 저희 학급의 가장 힘든 학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씨앗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다들 나쁜 씨앗을 싫어하게 되지만 나쁜 씨앗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고 본인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그림책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며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저희 반 학급 학생들이 나쁜 씨앗인 친구를 조금은 더 이해하고 그 친구에 대한 낙인을



없앨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 학급 학생들에게 읽어주며 마음속에 주변의 나쁜 씨앗 같은 친구를 떠올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씨앗인 친구가 좋은 씨앗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나쁜 씨앗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응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내게는 나쁜 씨앗과 같은 면이 하나도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되는 면을 육각 보드에 앞 뒤로 적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붙인 육각 보드를 보며 우리 모두에게 나쁜 면과 좋은 면이 동시에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나쁜 면 보다는 좋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보자고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반의 나쁜 씨앗 친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길, 그리고 함께 배우는 동료로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수업 하나만으로 180도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느리고 못나 보이는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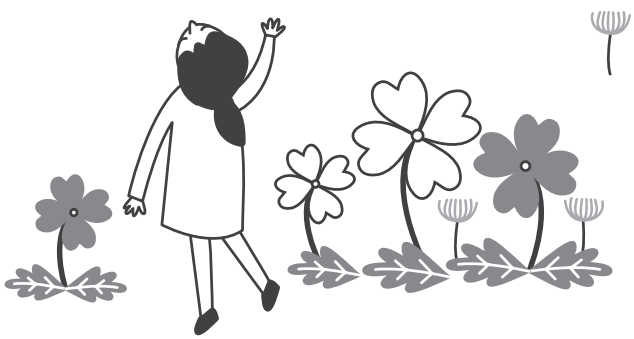
학급에 학생이 많아지니 학생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 시작한 점심시간 1:1 데이트 시간에도 저는 이 학생의 차례가 되면 학생에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행동과 말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와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아이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의 데이트 시간에도 이 학생이 요즘은 어떤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같이 응원해주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1학기 부반장 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이 학생에 대해 물었을 때,이 학생이 작년, 재작년과 달리 정말 많이 착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했고 제 짧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반장이었던 학생이 제게 역으로 이 학생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장할 부분이 많고, 그 성장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학생의 글똥누기 수첩을 보면 사실 3월 초반에는 적지도 않았던 학생이 글똥누기 수첩에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다가 아닌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로 바뀝니다. 학생의 감정적인 변화 외에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 교과서에 써야 할 내용들을 잘 적는 모습,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면 사소하고 별 것 아닌 일이지만 저는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2학기 학부모 상담 이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이 학생을 칭찬해주시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도 수업 도중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혼내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학생은 아침에 부모님께 혼나고 왔다고 왜 혼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을 보면 이제는 화나는 마음보다는 안타깝고 사랑을 주고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오롯이 1년을 맡게 된 저의 첫 학급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이 학생이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길,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해도 예쁜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배공! 한쪽! 스공! 그래서 열공 성공^^

인천효성남초등학교 교사 **전혜영**

1. What do you NEED?

학생들 이야기▶언제 또 온라인 할지 몰라

3월의 첫날, 언제나 떨리고 설레이는 날이다. 그러나 나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학교도 당분간은 원격과 등교수업을 병행한다고 한다. '첫 날, 첫 주가 얼마나 중요한데...어떻하지...'

둘째 주가 되어서 만나고 자기소개, 친교놀이, 학급규칙 세우기 등 준비되었던 초기 활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과수업에 들어갔다. 주중 3일은 원격수업, 2일은 등교수업인데 아이들과 나의 상호작용이 어디인지 어색하기도 하고 발표내용도 부자연스러웠다.

게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반응과 몰입도가 좋아서 수업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단원의 흐름,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이다. 왜 그럴까?

학부모 이야기▶스스로 학습은 꿈도 못꿔

그러던 중 때마침 학부모 상담주간이 되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A:"2학년때 구구단을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3,4학년은 원격수업으로 지나가고 5학년이 되니까 다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B: "학교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니까, 가는 날인지 아닌지도 헛갈리고 교과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더라구요."

C: "아이들만 두고 직장에 나가다 보니, 온라인 학습이 끝나도 손에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하루종일 하더라구요."

정의적 영역	▶▶	**NEED 01** 불안정안 학습환경을 정상화할 필요
인지적 영역	▶▶	**NEED 02** 누적된 학습결손을 해소할 필요
심리적 영역	▶▶	**NEED 03**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

2. What do you PLAN?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안정된 학습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의 반복되는 루틴이 필요하고 전에도 여러번 시도한 경험이 있는 '배움공책'이 생각났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히 쓰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결국에는 5-6명 정도의 성실한 학생들만 작성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그 배움공책! 그래도 일관성 있는 학습 기록을 위해서는 최적의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누적된 학습결손을 위해서는 일단 개개인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개별맞춤형 활동을 제시해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곱셈구구와 연산에 어려움이 있는 그룹 5명, 그리고 단위 수업시간 이외에 문제집이나 학원 등으로 전혀 복습활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그룹 16명, 매우 우수한 그룹3 명, 이들을 어떻게 동시에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너무 욕심을 내면 나도 지치고 학생들도 힘들다. 그래!'하루 한쪽'더도덜도 말고 하루에 딱 한 쪽씩만 매일 매일 복습해 보자.

학습이 진행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곳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온라인 세상. e학습터, EBS방송교육, ZOOM, 패들렛, 위두랑, 클래스팅, 밴드, 유튜브, ○톡, 웹툰, 메타버스, 각종 게임 등등 지난 2년간 급속도로 우리 곁에 함께 했던 사이버 세상들은 너무나 방대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무궁무진하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온라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력을 심어주자.

배공! 한쪽! 스공! 열공 성장 프로젝트

계획1 정의적 성장	계획2 인지적적 성장	계획3 심리적 성장
배움공책	하루한쪽	스공비
안정된 학습습관 형성	기초기본학습능력 향상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 습득
▼	▼	▼
□핵심 내용 공책 정리 □매일 3과목 이상 쓰기 □등교 직후 매일 제출	□이미 배운 단원 복습 □매일 한쪽씩 풀기 □스스로 채점, 함께배움	□스공비 자료집 배부 □선택적 자료 활용 □위두랑 인증 프로젝트

3. What do you DO?

가. 배움공책 = 배공!

인생은 선택과 인연이라더니, 배움공책을 시작하려는데 우리 오삼반 친구들과 만난 소중한 인연에 어떤 선택으로 녹여 낼 것인지 여러 가지 분야의 고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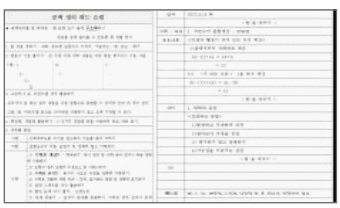
번	항목	고민		선택
1	권수	과목별로 공책을 다르게 할까, 1권에 다 쓸까?	→	☑1권에 다 쓰자~
2	분량	그날 배운 과목을 모두다 써야 하나? 선택적으로 쓸까?	→	☑3과목 이상~
3	양식	공책 표지나 쓸 내용, 양식은 어떻게 할까?	→	☑표지삭제 ☑날짜, 제목, 내용, 배느실
4	횟수	검사는 어떻게 할까? 매일? 일주일에 1번?	→	☑매일 검사하자~
5	보상	보상은 어떻게 줄까? 쿠폰? 도장?	→	☑칭찬도장

과목별 공책을 만든다면 가방도 무겁고 학생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1권에 모든 과목을 다 쓰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하루 6교시 모두를 다 기록한다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50% 이상, 즉 6교시면 3교시 이상되는 과목만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배움공책'이라는 예쁜 표지를 제공하려 했으나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자유롭게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배움공책(1),(2),(3)..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기로 했다. 대신 안에 쓸 내용은 기본 샘플을 주고 함께 연습해 보왔다. 샘플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틀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비주얼 싱킹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허용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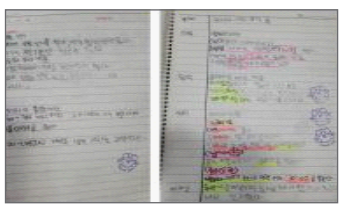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검사하는 것으로 했다. 매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배움공책을 제출하며 나와 눈 인사 하기~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배움공책은 기본학습 소양에 관련된 것이므로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칭찬 도장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칭찬 도장의 개수를 달리하여 보통은 1-5개, 우수한 정리는 6-8개, 매우 우수한 그룹은 9-10까지 도장을 팡팡~

배움공책 실행단계

1단계 – 안내하기	2단계 – 실천하기	3단계 – 검사하기
활동안내, 공책 맨앞뒷장 샘플 부착	수업중 또는 쉬는 시간 틈틈이 정리, 매일 아침 제출	칭찬도장 개수로 보상, 피드백 제공



앞뒷면 정리법과 예시



각자 실천하기

매일 아침 젲출하기

나. 하루한쪽 수학 = 한쪽!

이번에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 가장 심각한 수학과목을 잡아야 한다. 기초 기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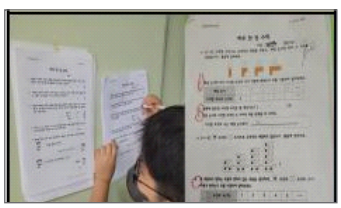
매일 하루에 1장씩 프린트를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번거롭고 수학 문제 풀이 책을 만들어 주면 분량 때문에 학생들이 지겨워한다. 나와 오삼반(5학년 3반이라서 오늘도 수고했삼반의 줄임) 친구들이 모두 적절한 양과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단원씩 끊어서 매일 하루 한쪽씩 풀어 시간을 체크하고 교실 앞문과 뒷문에 답안지를 게시하여 스스로 채점한 뒤, 보충이나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함께배움' 활동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경청해주기를 실천한다.

나는 매일 아침 학급 요록에 걸린시간을 표시하며 "좋아~ 빠르고 정확하구나~ 오호~ 느리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주었어~ 와~ 옳지~"등등의 감탄사로 학습동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주기만 하면 된다.

보통 한 단원을 복습하는데 대략 18-24쪽인데 양면으로 제공하면 9-12장 정도로 비닐 파일에 넣고 다닐만하다. 그리고 한 단원을 마치고 나면 볼펜 1자루나 막대사탕 그리고 다음 또 한 단원 묶음을 제공한다.

하루한쪽 실행단계

1단계 – 제공하기	2단계 – 실천하기	3단계 – 보상하기
한 단원씩 제공. 한쪽풀기, 시간측정	매일 아침 각자 채점, 함께 배움, 요록체크	격려의 말, 단원종료 후 간단한 선물



스스로 채점

함께배움

한쪽한쪽 모음

다.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 = 스공!!

마지막으로 심리적 성장을 잡고 싶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공과 한쪽으로 불안정안 학습 습관을 잡고 누적된 학습 결손도 채워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면 한학기 동안 쌓아 왔던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한번에 무너질 것 같았다. 마침'여름방학 매일 스공 실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안내를 보고 바로 신청하였다.

'스스로 하는 공부 비법'(이하 스공비)이라는 자료집이 도착했다. 학생들과 함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고 활동방법을 안내했다. 우리반은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과제방'에 인증글을 올리기로 약속하였다. 위두랑에 제시하된 과제는 예시 자료일 뿐이고 매일의 활동은 스공비 책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재 내용 중 '뽀모도로 활용법'이 좋은 친구는 4주 내내 매일 반복해도 좋다고 안내하였고, 만약 가족 여행 중이라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찍은 사진들을 인증해도 좋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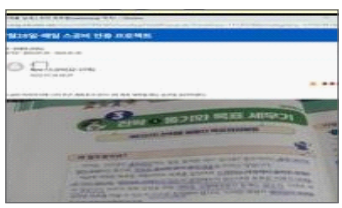
방학에도 매일 인증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했더니 장소만 바뀌었을 뿐 매일 제출하던 배공과 스공의 연장처럼 느껴졌고 뭔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느껴졌다.

스공비 실행단계

1단계 – 준비하기	2단계 – 실행하기	3단계 – 유지하기
스공비 서포터즈 신청, 활동소개, 학급 소통창구 개설	매일 반복과제 제시(샘플 또는 자율), 각자 활동 후 인증샷 올리기	활동에 대한 댓글달기, 특정 미션 이벤트, 완주 학생 학급 상품

서포터즈 가입

미션 제시



인증 업로드

인증 집계표

스공비 시상

스공비 기록

4. What do you GAIN?

3월부터 배움공책으로 안정된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고, 4월부터는 하루한쪽으로 기초기본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7월 여름방학 동안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을 통해 나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학습동기를 끌어 올렸다.

배공, 한쪽, 스공 성장효과

성장 1 – 배움공책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메타인지 상승
-하루의 학습을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형성
-배움의 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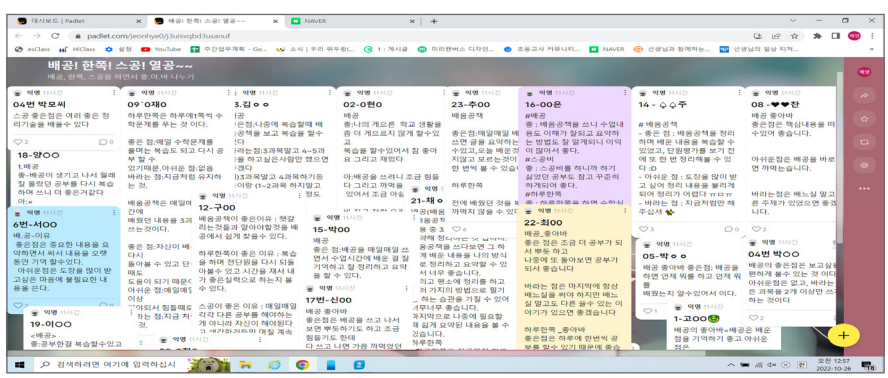
성장 2 – 하루한쪽

-매일 수학 복습: 끊어지지 않음
-학습 결손 예방 효과
-소수(우수,도움),일반집단 모두 효과 (단원평가 향상)
-학교에 오자마자 할 일이있음 (생활지도 도움)
-꿀팁:칭찬, 단원보상 필요

성장 3 – 스공비

-나의 성향, 습관 등 나에게 대한 파악
-집중력 방법 연습
-목표 설정으로 인한 학습 동기력 향상
-나에게 맞는 기록법, 학습법 반복 연습효과
-기록과 소통의 습관

우리 오삼반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여 솔직한 소감을 익명으로 나누어 보았다. 정리의 기술 습득, 언제든 복습 가능, 무엇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지, 게으른 나를 이끌어 주어서, 방학 중에도 꾸준히 실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골라서 하기 등이 좋았다고 한다.



어느 날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공 다했어? 배공 몇 과목 했어? 배공 도장 몇 개?”라고 말하는데, 배공이 뭐냐고 물었더니 배움공책의 줄임말이라고 했다. 그 말과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도 자연스럽게 배공이라는 단어를 즐겨쓰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되어서 역공, 역사공책도 시작했다. 심지어 겨울방학에 하는 스공비도 기대하고 있다.

가끔은 조금 귀찮아하거나 깜빡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실 한켠에 계속 쌓여가는 배공과 한쪽들을 보며 뿌듯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우리 열공 성공한 것 맞지~ 학교 오는 것이 너무 좋아!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총　괄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기　획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난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곽지순**
인쇄일 | 2022. 11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제작·디자인 | (주)글소리 (032.873.2626)